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1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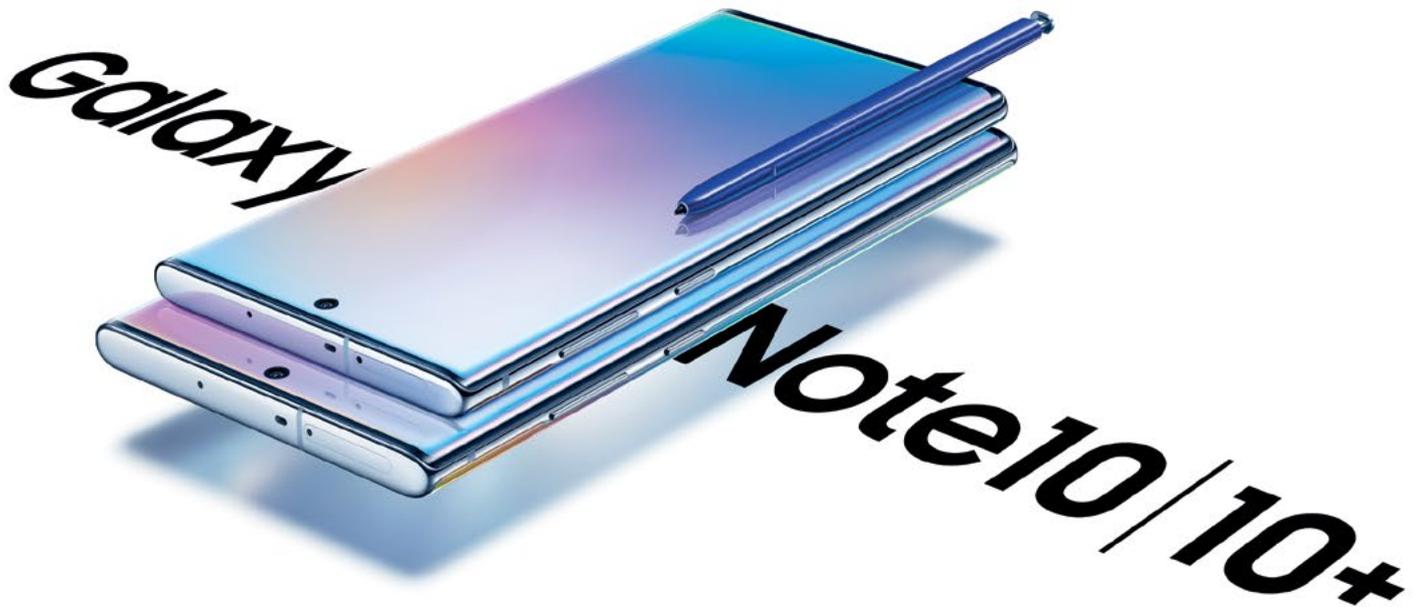
VOL. 281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www.samsung.com/id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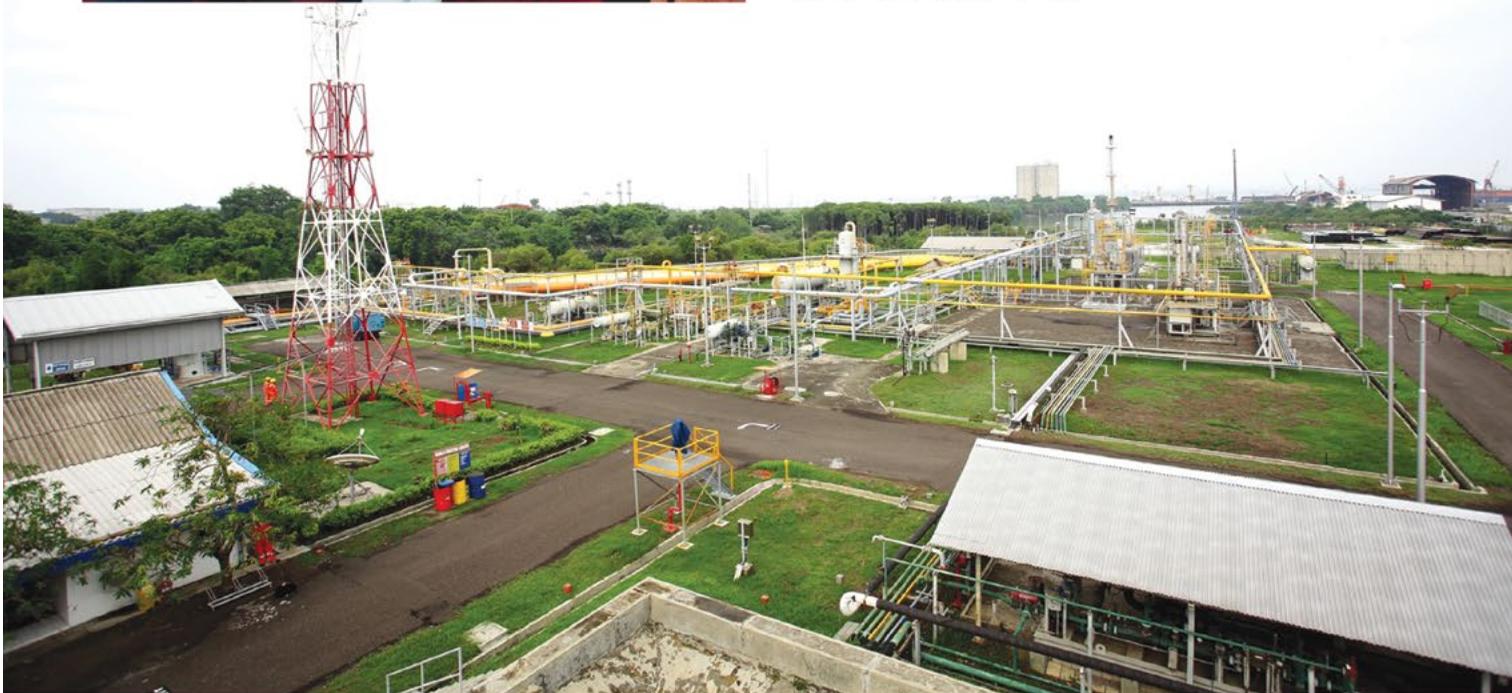
Image Simulated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contents

2019. 11. 통권 281호

- 05 호기심 4 <편집국>
- 08 논설위원 칼럼-의리와 향명의 기로 <김문환>
- 12 신성철 칼럼-한-인니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14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1) <조연숙>
- 16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이영미>
- 18 예술의 꽃을 피우다 <이수진>
- 22 이해창 경제칼럼-양자의 양자역학
- 24 KOGA 안창섭회장 취임식
- 25 제 100회 서울 전국체전
- 26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현대사] 25
- 30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4 자카르타 맛집 탐방 - Shu Guo Yin Xiang <주윤지>
- 38 특별 칼럼 <정선>
- 39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행사
- 40 우리 아이, 어디서 공부해야 좋을까 <김재구>
- 42 나 바 수 <민선희>
- 46 전자상거래 사이트 <편집국>
- 48 JKS 소식
- 50 구인구직의 만남의 장
- 51 서예 전시회에 가다 <박승헌>
- 52 1318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구상준>
- 53 뽕말랑, 안동- 결혼식 <권남혁>
- 54 건강칼럼 <재인니대한체육회>
- 57 제 4회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회
- 58 '햇살의 말씀' 북콘서트
- 60 양영연 한인회명예고문 국민훈장 목련장친수/ YBLN 이주한 신임회장
- 61 A STAR IS BORN <편집국>
- 62 상속법2 278
- 67 Pancoran 사람들 No.11
- 70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11 2019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람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롯데 애비뉴 로비에서 'ERES TU'를 들으며 행사장으로 이끌리듯 발을 옮겼다. 언제나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자카르타 아버지양상블의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노래를 마치자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전시 상황을 점검하는 **신돈철** 한인미협회장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1. 오늘(10월 19일, 2019 문예총 종합예술제의 오프닝) 공연과 전시를 모두 아우르시려면 정말 분주하시겠네요. 그 동안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저에게 전시와 공연은 자카르타에 살면서 늘 함께해온 오래된 친구같아요. 늘 그들과 대화하고 웃고 울고 의지했죠.

미술협회와 아버지 양상블 두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려니 때론 벅차기도 했지만 미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 힘든 시간이 스스로를 발전하게 했고 단체들과 소통하게 하는 기회의 문이기도 했어요.

이번 문예총 행사의 참여 역시 준비과정은 몸이 2개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저의 몸과 마음은 오히려 살아 움직였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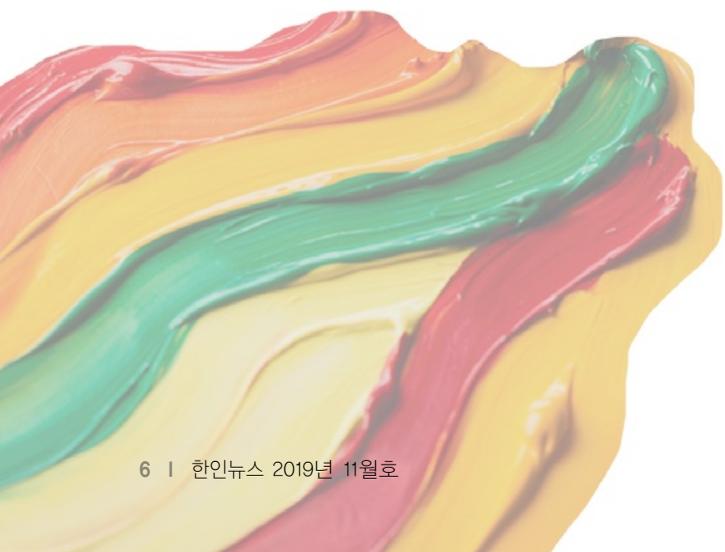


2. 좀 달라 보이는 음악과 미술이라는 분야는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 질문에 제가 음악과 미술의 일반적 다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단지 개인적으로는 음악(노래)과 미술(그림)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저에게 미술과 음악은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디딤돌 같은 존재예요.
 미술을 전공해서 그 업으로 평생을 살고 있지만 음악은 제게 삶의 윤택함을 더해 주었
 지요.
 때론 미술에 치우쳐서 힘들어하면 음악이 저를 치유해주고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가 되어
 저의 감성적 삶의 균형이 잡히도록 미술과 음악이 그 역할을 해 온 거죠.

3. 더 도전하고픈 분야가 있나요? 만약 다른 삶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요?

최근에 미술과 음악을 오래도록 즐기려면 체력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육체적 큰 아
 픔이 있어야 더 성숙되어 진다고나 할까? 하하.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을 단련하되 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여 교회에서 탁구를 시작했지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구력도 키워져서 신체가 건강해짐을 느끼는 1석2조의 또 다른 ‘함
 께’ 함이지요.
 혼자서 하는 외로운 게임은 안 하려 해요 ^^...
 그리고 보니 저는 예체능 쪽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 같네요.
 반평생 이상 살아온 저의 지나간 삶이 미술과 음악으로 격을 높였다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탁구로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논설위원 칼럼》

<베니장군과 한인사회 #4>



김문환/논설위원

의리와 항명의 기로

2주간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한 후, 중국무관이 될 꿈을 안고 베니는 알람샤 대령(Alamsyah), 수겡(Sugeng) 중령, 수비약또(Subyakto) 소령 등 다른 후보장교들과 무관 교육과정을 밟고 있었다. 당시 특전사의 부대장은 여전히 몽(Moeng) 대령이었으며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대부분 부대원들이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너무 강압적인 부하 통솔방식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부대원들이 베니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군 상층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분은 베니 소령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부대원들의 여론임을 확인한 베니는 총대를 메기로 결심했다. 베니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야니 장군을 독대하여 특전사 내부의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베니, 잘 들었네. 만약 후임 부대장을 찾는다면 누가 좋겠는가?” 당시 특전사의 지휘부는 부대장 몽(Moeng) 대령을 정점으로 참모장 위조요 수요노(Widjojo Soeyono) 중령, 교육대장 사르위 에디 위보위(Sarwo Edhie Wibowo) 중령이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서열이나 능력면을 고려하더라도 위조요 참모장이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야니 장군은 잘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 그러나 베니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야니 장군과 사르위 중령은 동향에다 같은 군 계보인 일본군 소속 향토방위군(PETA)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막역한 고향 선후배 사이였다. 야니 장군과의 독대직후 특전사의 인사조치가 시작되었다. 우선 복무 부적격자 및 결격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몽(Moeng) 부대장은 제일순위로 베니의 직속부하인 제1대대 작전관 아구스 헤르노또(Agus Hernoto) 대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아구스 대위는 서부 이리안 작전 때에도 베니의 직속부하로 머라우게 정글 속으로 같이 낙하하여 네덜란드군과 격렬한 교전 중 양다리에 심한 총상을 입고 네덜란드군 포로가 되어 네덜란드군 후송병원에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종전 후 포로교환 때 불구의 몸으로 자대에 복귀한 상이용사였다. “서부 이리안 작전 시 총 한방 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덤으로 훈장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구스 대위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 용감한 군인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진정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렇게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 불구로 야전근무가 불가능하면 행정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베니는 지휘관회의 때 부대장의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몽(Moeng) 부대장은 이 하극상 언행을 내부적인 일로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지역인 서부깔리만탄 전투지역을 시찰하는 베니.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며칠이 지난 후 베니 소령은 야니 총장의 소환을 받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며칠 전 특전사 내부 지휘관회의 당시의 베니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가장 엄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최정예부대 내에서 항명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소. 다른 부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일단 특전사를 떠나야겠소. 내일 부로 인수인계하고 수하르또 장군에게 가 보시오.” 눈앞이 캄캄했다. 임관 후 10년 이상 한곳에 몸담아 오면서 격동기의 주요작전마다 탁월한 전공을 세우도록 나를 키워준 보급자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이때만큼 좌절감을 맛본 적이 없었다고 베니는 후일 술회한다. 더구나 불문에 부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발설되어 시기와 모략에 의해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된 베니는 자기가 아끼던 부하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이 엄청난 좌절을 겪었으나 베니는 누구를 책망함이 없이 이를 오직 속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대결정책과 전화위복

1965년 1월 6일 베니는 임관 동기생인 할리미(Chalimi) 소령에게 특전사(RPKAD) 제1 대대장 직책을 인계하면서 특전사를 상징하는 모든 사물을 반납하고 오직 미국 공수교육 시 받은 ‘WING’ 마크만 가슴에 단 채 수하르또 소장이 이끄는 전략사령부(KOSTRAD)로 방출된다. 물론 중국 무관의 꿈도 허사가 되어 버렸다. 갑자기 전출명령을 받았으니 그를 맞이할 자리가 있을 리가 없었다. 작전참모인 와호노(Wahono) 대령의 방을 드나들면서 잔심부름 정도 하게 되니 이때가 베니의 군생활 기간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베니는 이틈을 이용하여 군사교범을 쓰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그런데 베니의 운명은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략사령부의 정보참모차장인 알리 무르또뽀(Ali Moertopo) 중령을 여기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베니, 언제 이곳으로 왔어? 또 만나게 되어 반갑구만.” 알리 중령은 1950년대 중반 수하르또가 중부자바 지역사령관, 서부 이리안 해방 작전사령관, 전략사령관을 거칠 때마다 줄곧 최측근 참모로서 수하르또를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심복중의 심복이었던 것이다. 베니와의 인연은 서부 이리안 해방작전에 같이 참전한 적이 있었다.

1961년에 들어서면서 말라카 왕국을 100여 년간 보호령으로 통치하면서 말레이반도의 오랜 중주국을 자처해왔던 영국과 1957년 압둘 라흐만(Abdul Rachman) 수상 집권과 동시에 독립한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 그리고 1959년이래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개편에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영국은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에 편입될 경우 야기될 인종문제와 사라왁(Sarawak), 사바(Sabah), 브루나이(Brunei)의 장래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난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말라야 연방, 싱가포르 자치령 및 영국령 보르네오가 연합하는 ‘말라야 연방안’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구상에 대해 즉각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수카르노를 위시한 정부 수뇌부는 ‘말라야 연방’ 자체가 혁명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이 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계속 말레이반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의심하였으며, 한편으론 말라야 연방의 경제발전을 시기하고 더구나 반정부군(PRR)과의 내전 시 말라야와 싱가포르가 이들 반군을 지원했던 점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수카르노는 ‘말라야 연방’ 결성시도를 ‘아직 끝나지 않은 인도네시아 혁명을 위협하는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간주하였다.

연방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브루나이도 말라야 연방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되자 인도네시아 정보국(Badan Pusat Intelijen)의 지원을 받은 브루나이 인민당 당수 아자하리(Azahari)는 이 연방안에 반대하는 일시적인 반란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1963년 1월 수카르노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방안 추진은 강행되어 1963년 9월 16일자로 ‘말레이시아’가 탄생하였다. 수카르노는 이에 대한 정면대결을 선언하며 1964년 5월 3일 ‘Dwi Komando Rakyat(Dwikora)’을 결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도네시아 주권을 수호하고 말라야, 싱가포르, 사라왁, 사바 혁명을 지원하여 말라야 연방안을 분쇄한다.’는 요지였다. 수카르노의 온갖 선동책에 아랑곳없이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1965년 1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피선되는 개가를 올리자 인도네시아는 즉각 유엔을 탈퇴하고 대 말레이시아 군사작전을 수행할 기구인 ‘꼬만도 만달라 시아가(Komando Mandala Siaga)’를 편성하여 오마르 다니(Omar Dhani) 공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수하르또 소장을 부사령관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지휘부도 구성하였다. 그 하부조직으로 정보,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작전처(OPSUS; Operasi Khusus)가 발족되어 알리 무르도뽀 중령이 실무책임자가 되었고 베니는 이때서야 비로서 알리 중령의 보좌관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본토에 교란특공대를 침투시키는 임무를 부여 받아 수마뜨라 메단(Medan)으로 파견된다. 베니는 항공사의 세일즈 매니저로 가장하여 싱가포르, 홍콩, 프놈펜, 태국 등을 돌면서 수 십 명의 후방 교란요원들을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카르노의 선동에 의해 가열되던 대 말레이시아 대결정책도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당사국 군사, 외교 실무진에 의해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서서히 냉각되고 만다. 우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선 서부 이리안 해방전쟁을 바로 끝낸 시점이라 국가 재정상태가 껍박해 있었고 정글전이란 특성상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추가전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신무기로 무장한 영군 및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 군과의 전쟁에 승산이 희박함을 인정하고 있는 육군의 견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영국의 입장에서선도 현재와 같은 국지전만 해도 하루 백오십만 불씩의 전비를 투입해온 터에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 엄청난 전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장기전에 대한 비관적 견해도 작용하였다. 압둘 라흐만 수상의 ‘말라야 연방안’에 대한 구상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를 환영하였던 이관유 싱가포르 수상도 말레이시아 측의 국왕제와 토착민(Pribumi) 우대정책에 대한 저의가 드러나면서 이를 이탈하여 1965년 8월 16일 자로 독자적인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브루나이 원유 수입대금의 50%를 징수당할 것이란 내막이 폭로되면서 브루나이도 탈퇴하여 버렸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만약 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되면 자연히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 애초 생각했던 영국의 목표가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거창했던 동맹관계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여 이제 누군가 이 싸움을 말려 주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사실상 타결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CEPA는 양국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인도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CEPA 체결국이 된다.

양국간 CEPA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에 5~15% 부과됐던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현지에서 완성차·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무관세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자카르타 동쪽의 버카시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계 브랜드가 95%가량 장악한 상황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으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가격 경쟁에서 대등한 선상에 설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고 국내총생산(GDP)도 1조달러가 넘어 아세안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다. 그

간 인도네시아 현지 진입장벽도 높았는데 CEPA 타결로 이것이 해소됐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도 갖추게 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합성수지, 화학제품 등이 대폭 열렸고 자동차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도 개방되게 된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2기 조꼬 위도도(조꼬위) 정부의 국정 과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개발 △투자 문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자원 의존적 산업에서 제조업과 디지털경제로 전환 △관료 개혁 등으로 1기 조꼬위 정부의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고, 동부갈리만만 주를 이전 지역으로 확정했다. 자카르타는 빠른 도시화와 인구 집중, 교통체증, 환경오염, 지반침하 등으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 또 국가 경제력이 자카르타와 수도권에 편중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 조꼬위 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 이전은 2020년에 착공해 2024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도 중앙에 위치한 동부갈리만만 주(州) 북부 빠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와 꾸따이 까르타나라(Kutai Kartanegara) 등 2개 군(郡)에 걸쳐 있는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는



2018. 9.10.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출처 : SBS 뉴스)

인근에 발릭빠빤과 사마린다 등 중간 규모의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와 항구, 항만 등 육해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도 이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총 33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이 투입될 새 행정수도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아세안과 스마트시티 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재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공식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영 건설회사 후따마 까르야(Hutama Kary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 사업은 물론 자카르타 북부 방조제 사업과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하다. 지난 10월 20일 조코위 대통령 재선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코위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잘 맞는 것 같다. 영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좋다”,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빌 텐데 기대가 크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사실상 타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남다른 친밀감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50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과 이듬해 진출한 인니동화(현 코린도) 등 산림개발회사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섬유·봉제와 신발에 이어 LG 전자와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동해 현지에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기업은 철강, 석유화학, 방위산업, 금융, 유통, IT, 제약, 한류 관련 화장품과 외식업 등 투자업종도 다양해졌다. 앞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거울로 삼아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1)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는 정체성 확인과 미래로 나가기 위한 노력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탐구하는 이유에 대해, 역사란 단순히 과거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한인들은 이역만리 낯선 땅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나? 지금 한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앞으로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인 100년사 집필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집진은 일반적으로 한인사 서술 방식대로 사건과 인물 중심의 연대기 형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더해 한인들의 생활사를 기록하기로 했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계절이 바뀌지 않고 사시사철 더운 나라 인도네시아로 온 사람들. 한국인들은 낯선 인도네시아에서 알파벳 읽기와 현지 날씨에 대응하기, 빨래하기, 음식 만들고 보관하기, 운전기사가 있는 자가용 관리, 가사도우미 고용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새로 배웠다. 외국인 또는 비국적자가 되었고, 무슬림이 주류인 사회에서 비무슬림으로 소수그룹이 됐다. 다른 나라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업무만이 아니라 생존과 생활 방법을 새로 배우며 인도네시아에 정착했다.

세상이 과거와 달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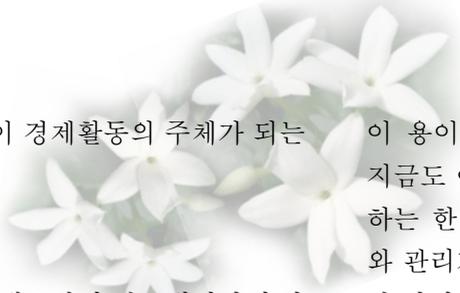
도네시아는 한국의 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빠른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동시에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교통수단, 취사연료, 음식재료, 옷, 주택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사회와 시장이 제공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항공기로 실어왔다 해도, 그것이 전체 생활에서는 큰 비중이 못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라는 환경이 제공하는 만큼의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의 의미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이 생계를 위해 했던 일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이 되었고, 그들이 여가를 위해 했던 활동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여성은 생존과 생활 기반 마련

현지 한국여성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동반 가족으로 인도네시아에 와서 가사와 육아를 통해 한국식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주역으로 직접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을 채우면서 한인공동체가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초창기에는 남편을 따라 이주한 전업주부들이 많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이 직접 취업



하거나 창업을 해 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 늘었다.

음식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은 가정이나 회사 단위로 한식을 만들어서 먹었다.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김, 멸치 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재료는 한국에서 직접 들고 왔고, 고기, 생선, 채소 등 신선식품은 현지에서 구입했다. 취사도구는 석유곤로, 가스렌지,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한식당, 해산물전문음식점, 피자과 치킨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각종 식당이 생기고 외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 식재료 구입처는 한국슈퍼와 현지 슈퍼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온라인 구매도 활발하다.

의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의류는 한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의류를 견본으로 현지에서 옷을 맞추기도 했다. 직접 쇼핑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줄 경우 수선해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다국적 의류 브랜드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인도네시아 의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늘었다. 온라인 방식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상점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곧 없어졌다.

주거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부터 한국인들은 주로 단독주택을 월세로 임대해서 살았고, 소수는 직접 구입해서 거주했다. 일부 기업은 회사 내에 임직원용 숙소를 짓거나 회사외부에 구입한 주택을 제공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같은 전세제도가 없다. 2000년대 초반 자카르타에 다양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생기면서 안전이 보장되고 주택관리 등

이 용이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한국인이 늘었다. 지금도 아파트가 적은 지방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인이 많다. 주요 도시에 아파트처럼 경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단지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호한다.

자녀교육

자카르타의 경우 미국계 자카르타국제학교(JIS)와 인도계 간디학교(GMIS)에 보내다가, 한국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개교 후 대부분의 자녀들이 한국학교에 다니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영어를 중심으로 수업하는 준국제학교가 증가하면서 한인자녀들이 다양한 현지 학교에 다니게 됐다.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현지사회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현지 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자카르타에서 성장한 한국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10%가량의 학생들만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대학에 진학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

교육, 부모 봉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독 부임하는 경우, 부부만 이주하고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 노부모까지 인도네시아로 모셔와서 대가족을 이루는 등 다양하다. 지방의 경우 중고등학교부터 자녀를 주변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포함해 해외 대학에 보내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부모의 지원을 받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대학생 때부터 독립하게 된다.

해외 이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한국 가족과 친구는 멀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만난 이웃과 친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은 외국인이 되고, 한인공동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주목받는 대상이 된다. 외국인으로서 위축되고, 한국인들 사이도 예민해진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 탐방 2.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꽃을 피운 한인 불교

글: 이영미/한인사 편찬위원회 연구위원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탐방 <불교편>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회와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공동기획하였습니다.

- 탐방 일시: 2019. 10. 27(일) 10:30a.m.~16:00p.m.
- 기원정사, 해인사, 송광사 포교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거대한 보로부두르 유적지는 이슬람의 침입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대승불교가 득세했음을 입증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5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개하거나 꽃잎을 움츠리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불법(佛法)이다. 다양한 불교 문화가 섞이며 발전한 인도네시아의 불교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한인 불교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6년 4월 초과일을 기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 산하 자카르타 능인선원에서 관세음보살님 봉안식과 함께 개원한 **기원정사**는 교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2003년 4월 Jl. Rajasa로 이사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정사로 개원하였다. 2017년 현 위치 Jl. Cipaku 2 No.7로 이전하여 주지 성찬 스님을 모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기원정사로 거듭났다. 성찬 스님은 2014년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 경)의 첫 열린강좌에서 '지정학적 관점으로 본 인도네시아의 불교 생성 시점과 보로부두르의 공통점 '에 관한 강의를 할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30명 정도 되는 신도들은 다도 예식으로 차린 차를 나누기도 한다. 섬없이 달려온 카페인 가



득한 날들에 지친 분이라면 심신을 정화하러 들러도 좋을 듯하다.



해인사 인도네시아는 석용산 스님의 주관으로 1991년 현정규 외 다수의 신도와 협의하여 가정법회를 시작으로 기틀을 닦았다. 현지 양로원과 헤븐스와 직스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보시 활동을 통해 '수행과 보시'를 중시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일요 법회를 참석한 탐방팀은 해인사 인도네시아의 현판식 행사에도 참석하는 행운을 안았다. 특별히 현판식을 위해 해인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일요 법회를 진행해 주신 해인 스님은 거자불성부처님의 온혜(溫惠)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 '신도의 확장'과 '행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주(해인사 인도네시아의 회장) 씨는 인터뷰에서 복잡한 불교사원 개원 절차가 인도네시아 한인 불교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2005년 10월 해인사 포교원에서 독립한 송광사 포교원은 2009년 송광사 분원 고려정사로 개명한 뒤 2017년 땅그랑 빈따로로 이전하며 2019년 3월 **송광사 포교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 등

록 신도수는 약 180명으로 스님 부재 시 신도회 자체규약에 의거 운영된다. 송광사 포교원의 이영일 무애거사는 시공간을 보는 불교적 관점인 무시무종(無始無終)의 가르침에 따르면 당장의 삶을 두려워하기보다 멀리 보는 안목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끊임없이 수행하며 불법을 깨우친다는 무애거사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첨부한다.



붓다의 들녘에서 무애 이영일 합장 (송광사 포교원)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위 구절은 불교의 대표적 초기 경전인 <법구경>을 시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 수행의 요체는 먼저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대해 알게 되면 마음을 고치거나 닦을 수 있다.

누구라도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할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닦고 다스리려면 마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안정된 마음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의 안정은 더욱 행복한 삶과 안정된 미래를 의미한다. 내면의 안정감이나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친구와 훌륭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종교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마음을 닦는 자세나 방법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마음은 색깔도 형상도 없지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들을 살펴보면 분노, 증오, 질시, 극단적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과거 경험과 사건을 통하여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성찰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을 개선하는 불교 수행법은 ‘연기법’이라는 상호의존 원리에 기반을 둔다. 만물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원인은 만물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인과 법칙에 근거하며,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인연’ 또는 ‘연기’라 한다.

불교의 중심적 가르침으로 고통, 즐거움의 원인과 근본적 관계가 있으며 우주 만물의 상관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세계관과 시야를 넓혀주며 생활 속에서 친절과 자비의 마음이 커지고 분노와 증오심을 줄이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즐거움에는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 직접적 원인은 ‘카르마(업)’이다. 카르마란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행위는 서로 원인이 되어 어떤 형태로든 결과로 나타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날 탐방팀을 이끈 사공경 한인니문화원장과 불자들은 찬불가 공모와 불경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불자를 양성하고 젊은 세대의 접근이 쉬운 사찰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타인을 포교하기보다는 개인의 수행에 중점을 맞춘 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 불법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자생존에서 파생한 ‘빠른자 생존(survival of the fastest)’이나 ‘속도의 경쟁력’과 같은 신개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느리고 조용한 철학적 미학’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는 곧 행복이다. 나를 축복하는 것이 곧 남을 축복한다는 부처님의 행복론이 담긴 겨자씨는 이미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한 알의 겨자씨를 썩히느냐, 키우느냐는 내 마음속의 부처에 달렸다.

“예술의 꽃을 피우다” 문예총 제6회 종합예술제

10월 19일에서 25일, 일주일간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19일(토) 한인 문예총(회장 박형동)의 제6회 종합예술제가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많은 공연과 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막식이 개최된 행사장 롯데 쇼핑에비뉴 메인아트리움은 넓게 트인 실내에 세워진 무대와 음향 마이크 시설도 좋고 장소가 아담하여 공연을 하기에 부족함 없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김희년 수석부회장, 손한평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과 한인들이 모였다.

문예총 임원들 및 행사 준비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박형동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전시 장소 세팅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하며 전시파티션을 마련하였다. 개막식에서 박형동 문예총 회장은 이번 문예총 행사를 통해 “자카르타에 사는 교민들이 우리 문화

를 되돌아보고 체험하며 하나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한다” 고 밝혔다.

개막식은 서은혜씨의 매끄러운 사회로 진행되었고 개막식에 이어서 몇가지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첫번째로 무대에 오른 음협은 첼로 바이올린 플룻 등의 클래식 8중주 연주로 산뜻하게 ‘알라딘’, ‘보헤미안 랩소디 매들리’ 등을 선보여주었고 장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주었다. 아버지 앙상블은 남자 합창단의 면모를 과시하려는듯 박력있는 육중한 합창으로 ‘그대있는 곳까지’

‘아름다운 강산’ 등의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인무용단 상고무는 무대에 상고복을 설치하고 무용단 5명이 좌우로 복을 두들리며 춤을 추는 멋진 춤사위로 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국악사랑 상모돌리기는 무대가 너무 좁아서 객석 앞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큰 호응을 이끌었다.



초청 공연단체 <정가단 아리>는 정가를 부르는 어린이들의 합창 단체로 정가등의 정감있는 한국 노래를 불러 공연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정가단 아리의 노래소리는 한목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었고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듯하게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튿날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는 14팀의 청소년들이 30여명 참가해 자신들의 끼와 실력을 노래 춤 비트 등으로 보여주며 열띤 경쟁속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날 청소년 대회는 김혜정 총감독이 사회를 맡았으며 철저한 행사 준비로 인해 많은 찬사가 나왔다.

새로운 시도로 개최된 청소년 예술 경연 대회는 청소년들도 기량을 발휘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임원진들중에서 김혜정 총감독의 알찬 구성과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다.

막간에 이어진 현지인들의 K POP 댄스도 다이내믹하고 멋진 시간이었다. 이어서 본공연 때는 색동희의 3인 연주로 공연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한바퀴 공연은 아리랑을 빠른 템포로 들려주며 멋진 사물놀이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한인무용단은 배애리 외 2명으로 이루어졌는데 빨간 무용복이 한층 돋보이는 창조적인 창작 무용을 선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멈추지 않게 하였다.

전시단체로 미협외의 유화를 비롯한 미술 작품 30여점과 문협 시화전이 전시되었으며 초대 작가 공광규 시인 번역 시집 “햇살의 말씀” 특별 전시 및 사인회가 벌어졌다. 초청전시로 김수남을 비롯하여 7인의 꽃꽂이 전시회는 전체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였다. 7인이 15개 작품을 준비하느라 며칠전부터 전시에 사용되는 소품과 꽃들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꽃꽂이 전시를 하며 전체 전시회에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국문화원에서 준비한 디카시 전시회도 기획적으로 돋보였다. 장식에서 가을분위기를 풍기는 사진과 함께 올라온 재미난 시글도 눈길을 끌었다. “소망 메시지 사과나무”를 고안하여, 참가자들이 소망 편지를 기록하여 매달아두는 행사도 벌여 많은 소망이 나무에 매달렸다.





한인문예총 뱃지도 로고를 담아 제작하여 나누어 참가자 모두에게 참여의식을 높이고 한인문예총을 널리 알려주었다. 개막식 날과 이어 본공연시에 있었던 플래시몹 “나는 대한민국이다”는 경쾌한 음악과 율동을 담은 행사였다. 한인무용단 소속 이은주씨가 이끈 플래시몹에서 내빈 등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티셔츠를 착용하고 율동에 맞춰 춤을 추었다. 마지막에 플래시몹이 끝날 때 대형 태극기가 무대위에서 휘날렸다.

평일인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부 12시~1시 2부 오후 6시~7시에 릴레이 미니콘서트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였다. 한바패 김일순씨를 비롯한 8명의 “장구랑 나랑” 단체에서 장구춤을 선보여주었다. 미협에서는 부채만들기 행사를 하여 현지인들과 50여개의 부채 색칠하기 행사를 하였다. 저녁시간에는 한인무용단 배애리씨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창작 무용무대를 만들었다. 이어서 이희진씨의 가야금 공연이 있었고, 아버지양상블도





한인문예총



KOREATHESENSE



전체 연습시간에 맞춰 미니콘서트에 참가해주었다.
 이 행사를 후원한 분들은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원,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양영연 한인회 명예고문, 이호덕 로얄수마트라회장, 강희중 대한체육회 회장, 김태화 대한체육회부회장, 김준규 한인회고문, 재인니 신발협회,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회의, 하재수 완구협회장 등이다.

글 : 이수진 문예총 수석부회장



'양자(兩子)의 양자(量子) 역학'

대한민국사람의 시대정신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지난 9월 개봉된 범죄오락영화 “양자물리학”의 주인공 이찬우가 여러번 주장하는 대사다. 계속되는 험난한 환경에서도 ‘파이팅’의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는 주인공 찬우의 캐릭터는 한동안 필자의 뇌리에 남아 긍정에너지를 만들어 내었다. 영화의 제목인 “양자물리학”은 ‘양자(量子)역학’을 말하는데 양자역학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양자’와 ‘역학’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양자(量子)’로 번역된 영어의 quantum은 양을 의미하는 quantity에서 온 말로,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학(力學)’은 말 그대로는 ‘힘의 학문’이지만,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물리학의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힘과 운동’의 이론이다. 이렇듯 양자역학이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파동이 맞는 사람들끼리 거대한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양자물리학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영화속 주인공들은 각자가 믿는 확고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에 대항한다. 그리고 그러한 파동은 실제, 기적을 만들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부패한 집단의 승리로 끝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에서 벗어나 썩어빠진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영화가 개봉되었을 즈음 대한민국은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이데올로기적 파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의 역학(力學)에 대한 거대한 장(場)을 만들어 내었다. 대학철학수업에서 배웠던 헤겔의 변증법적 정반합(正反合)은 실제 현실에서 스냅샷으로 보았을 때는 ‘질서와 중용’ 보다는 ‘카오스(Chaos)’의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던 듯 하다.

굳이 이념의 대립을 언급할 필요 없이 위에 언급한 대한민국 내의 ‘광화문과 서초동’ 그 양자(兩子)의 갈등을 비롯해 올해 칼럼을 통해 언급했던 ‘미국과 중국’, ‘중국정부와 홍콩시민’,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마찰 모두 크게 보면 ‘황금률’과 ‘은율’에 대한 입장에서 유래하였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황금률(黃金律, Golden Rule)’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황금률은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반면에 ‘은율(銀律, Silver Rule)’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이다. 은율은 이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논어’에서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바 있다.

이렇듯 양자(兩子)의 Rule은 오랜동안 개인의 윤리관 내지 자기관리에 관한 명언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다가 사회개혁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 중 정치철학자 칼 포퍼가 대표적이다. 포퍼는 정치적 이상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상에 천국을 실현하겠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며 우리나라의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지만, 남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재나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지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식의 황금률에 입각한 시도를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으로 부르고, 소극적으로 남의 고통과 사회악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식의 은율에 입각한 시도를 ‘점진적 사회공학’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쉽게 말해 남에게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남이 싫어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과의 차이 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사실 황금률 보다는 은율이었으며 대부분의 정치학자와 철학자들 또한 은율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인류는 사회적으로 무엇이 정의인지 보다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정책 또한 황금률에 근거한 정책들이 은율에 비해 대중을 설득시키기 쉽고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보통이며 (굳이 필자가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 없이) 국내 및 국제 정치를 보면 그



의견은 더욱 선명해 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쉽게 말해 부모가 어린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는 것과 ‘(나쁜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차이이다. 당연히 미성숙한 어린자녀 일 수록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욱 선명하고 효과적인 훈육방법일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어린자녀’인지 아니면 ‘성숙한 어른’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각자의 몫인 것이다.

헤겔은 대표작인 “논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역사란 절대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추상적인 이상이 역사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된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실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기위해 급급하며 자신의 일상이 세계 경제 변화에 그리고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각자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만이 나와 가족은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대한민국사람 특유의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채 (옆,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릴 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몇달 전, 필자를 비롯한 회사의 동료들은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회사의 비전’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얻어낸 ‘미션’을 특별히 제작한 팔찌에 새겨넣었으며 그 미션을 이룰때 까지 팔찌를 지니고 다니기로 결의 하였다. 그리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영화 속 대사가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30주년 한인 봉제인 축제의 장 KOGA 회장 이취임식



2019년 10월 29일, KOGA(한인봉제인 협의회)는 자바 팔래스 호텔에서 한인 봉제인 축제의 장을 펼쳤다.

제 30대 안창섭회장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김창범대사와 승은호 한인회명예회장, 양영연 한인회명예고문,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과 봉제협의회 회원사 대표들, 한인사회 각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재한 전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KOGA에 협조해주신 많은 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영원한 봉제인으로 앞으로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KOGA골프대회에 이어 KOGA의 새로운 수장 30대 안창섭회장의 취임식과 만찬, KOGA인의 노래경연으로 화합의 축제를 이어갔다.



제 30대 안창섭회장은 취임사에서 “최저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는 더 이상 KOGA만의 문제가 아닌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 전반의 문제” 라며 “인니 봉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OGA와 로컬 봉제기업이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맞다” 고 밝히고 “30살 청년의 KOGA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 30대 회장단과 사무국이 함께 임기 동안 회원사 여러분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 을 약속했다.





제100회 서울 전국체육대회

지난 2019년 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 열린 제100회 서울 전국체육대회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3만여명이, 3,300개의 메달을 걸고 성대히 개최되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강희중, 단장 김태화)에서도 해마다 110명 정도 출전하던 것을 올해는 축구, 볼링, 태권도, 테니스, 골프, 탁구, 스쿼시 및 검도의 8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포함하여 역대 최대인 136명이 출전하였다.

올해 정식 종목이 된 검도와 배드민턴에서 검도만 출전하고, 배드민턴은 내년부터 출전할 계획이다.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을 그동안 같고 딱은 실력으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메달과 함께 종합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특히 올해는 개막식부터 전 임원들의 부부가 참석하여 매 경기마다 열띤 응원과 함께 폐막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어 인도네시아의 단합된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보여준 해였다. 김태화 단장은 매 경기 응원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미화 3천 달러의 시상금을 걸고 격려하였으며, 만찬과 선물 등으로도 큰 힘을 보태었다.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부터 시작되어 100주년 이 되었고, 나아가 2032년 올림픽에는 남.북한이 공동개최 하는 염원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는 허울만 100회지 해외동포들에게 냉담함을 비추어 아쉬움이 남는 해였다.

2020년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본다.

(재인니 대한 체육회제공)



APRA 반란



베스텔링 대위의 APRA 깃발 (Angkatan Perang Ratu Adil : 공의로운 여왕의 군대)

지난 호에 이어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이 막을 내리던 1949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각종 반란이 시도되었고 다룰이슬람의 경우와 같이 어떤 것은 자칫 국가의 근간을 파괴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중 아프라(APRA) 반란이라는 것이 있었다.

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던 자바와 수마트라는 한 개로 묶여 인도네시아 합주국 16개 주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른 15개의 연방주들은 네덜란드가 1945년부터 창설했던 괴뢰정권들로서 독립적 체제를 완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자체 대통령과 국기도 가지고 있었다. 그중 반동을 포함하는 빠순단주에서 세력을 갖춘 라뚜아딜(Ratu Adil) 부대, 즉 ‘공의로운 여왕의 부대’라 불리우는 세력이 1950년 1월 23일 반동과 자카르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독립전쟁 당시 남부 술라웨시의 소요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다가 군복을 벗은 네덜란드 특수부대 DST 출신의 레이먼드 ‘터크’ 베스텔링 대위가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라뚜아딜의 군대(Angkatan Perang Ratu Adil - APRA)라는 친네덜란드계 준군사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베스텔링이 1949년 1월 15일 창설한 것이었다. 이 민병대 명칭은 자야바야(Jayabaya)의 예언서에서 터키인의 후손 중 공의로운 제왕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에 기반한 것이다. 터키 태생이었을 뿐 터키인의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도 베스텔링은 자신이 폭군에게서 인도네시아 민중들을 구원할 그 공의로운 사도라고 주장했는데 절대 먹힐 것 같지 않은 이 주장이 난해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묘하게 먹히면서 라뚜아딜의 군대는 그 세를 불렀다.

라뚜아딜은 구원자로서의 한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공의와 위로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화에 기초한다. 남자 왕은 ‘에루쪄크로’(Erucokro)라고도 부른다. 예언에 따르면 라뚜아딜의 강림의 시기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왕조가 쓰러지는 등의 전조를

보이는 때라고 한다. 하지만 공포로 전횡하던 왕을 갈아엎은 후 라뚜아틸의 치세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었다. 성서의 계시록과도 사뭇 닮은 이 신화를 영악한 베스털링은 교묘히 차용했다.

베스털링은 인도네시아 합주국의 연방자치주들을 부추겨 수카르노와 하타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통일운동을 자바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매도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18개의 다양한 분파들, 즉 과거 공화국군 게릴라, 다룰 이슬람, 암본, 멀라유, 미나하사, 퇴역 KNIL 부대원, RST KNIL 특수전 연대 출신, 그리고 네덜란드군 출신들을 모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친네덜란드 성향을 띤 그룹들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 시골자경단으로 출발한 APRA는 2개 연대규모의 전투원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했다.

수카르노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은 베스털링은 네덜란드 연방을 지지하는 썬띠아낙의 술탄 하미드2세를 부추겨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그는 수카르노 정부를 전복시키고 당시 국방장관 술탄 하멩꾸부워노 9세와 알리 부디아르쥬 사무국장을 포함한 주요각료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스폴장군은 개인적으로 베스털링을 좋아했지만 그가 남부 술라웨시에서 벌였던 작전과 관련해 군법회의에 회부된 모든 전쟁범죄혐의에 대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면 네덜란드군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베스털링의 강제 퇴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베스털링은 2년 반동안 DST와 KST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경력을 마지막으로 1948년 11월 16일 현역생활을 마쳐야만 했다. 불명예제대로 상심한 베스털링은 당시 애인과 결혼하여 서부자바의 빠셋(Pacet)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터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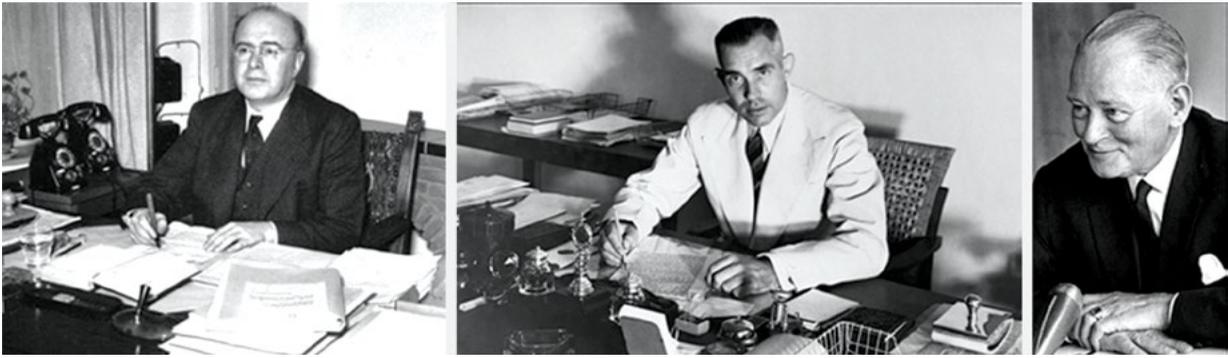
그로부터 1년 후인 1949년 11월 네덜란드군 비

밀정보국은 베스털링이 50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비밀조직을 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네덜란드 경찰조사관 J.M.버버그는 1949년 12월 8일 ‘인도네시아 공의로운 여신 연대’ 이라는 단체가 공의로운 여신의 군대(APRA)라는 군사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며 베스털링이 깊이 간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베스털링은 썬아빠엣까이라는 화교 무기상의 도움을 받아 부대를 무장시켰는데 그는 베스털링이 메단 시절부터 거래해 오던 사람이었다.

12월 5일 밤 10시경 베스털링은 스폴 대장 후임으로 네덜란드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해 있던 부르만 반브레텐 중장에게 전화하여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주권을 이양한 직후 자신이 수카르노와 그의 정부를 전복시킬 쿠데타를 벌이겠다고 반브레텐의 의견을 물었다. 반브레텐은 이미 주권이 양을 저지하려는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는 물론 베스털링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베스털링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을 듯 하다. 하지만 반브레텐 장군은 1949년 12월 27일에 있을 주권이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베스털링의 쿠데타계획을 반대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곧이 베스털링을 당장 잡아들이는 수고를 하려하지 않았다.

1950년 1월 5일 베스털링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수카르노 정부에 보냈다. 그는 합주국 정부가 빠순단주를 포함한 자치주들을 연방국가의 격에 맞게 대해야 하며 특히 APRA를 빠순단주의 공식군대로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7일 이내에 공화국 정부가 긍정적 답변을 보내울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이 편지는 공화국 정부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신임 네덜란드 고등판무관 H.M.허쉬펠트 박사도 긴장시켰다. 쏟아지는 합주국 내각의 질문공세가 그를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다.



허쉬펠트 고등판무관 로빙크 고등판무관 슈티커 장관

네덜란드 내무장관 슈티커는 모든 네덜란드 민간 관료들과 군인들이 베스털링에게 협조토록 하라는 지시를 허쉬펠트에게 내린 상태였지만 합중국 내각의 질의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1950년 1월 10일 하타 부통령은 이미 베스털링의 체포령을 냈음을 허쉬펠트에게 통지했다. 로빙크가 네덜란드측 전임 고등판무관으로 있을 당시 그는 베스털링의 면책특권을 요구해 받아낸 바 있었는데 이제 합중국국정부를 그 면책특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때 베스털링은 자카르타의 호텔드인디(Hotel Des Indies)에서 뿐더러 술탄 하미드 2세를 만나고 있었다. 그들은 1949년 12월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스털링은 자신의 쿠데타 계획을 설명하면서 하미드 2세가 자기들 조직의 수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었다.

하미드 2세는 베스털링에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므로 당시 회합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의 회합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베스털링은 1952년에 쓴 자서전 '기억'에서 하미드 2세를 수장으로 한 그림자 내각이 실제로 구성되었지만 하미드 2세는 이를 비밀에 붙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하미드 2세는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베스털링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식민지 시절 KNIL 부대의 중장계급을 달았

고 네덜란드 여왕 근위대 명예장교이기도 했던 그는 독립전쟁 기간 내내 줄곧 네덜란드 편에 서있었고 크라이 작전으로 수카르노 정부가 나포되었을 때 족자에 혼자 남은 술탄 하맹꾸부위노 9세를 회유하려 시도했던 전력에 비추어 그가 APRA 반란 연루되었을 것이란 추론은 사뭇 개연성이 높다.

1950년 1월 중순 연방 및 해외주 담당장관인 J.H. 마르스번이 1950년 3월에 조직될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연방회합을 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하타는 베스털링의 체포지시를 내렸음을 다시 한 번 통지했다. 공화국 경제장관 주안다도 1950년 1월 20일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괴책 장관에게 현지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던 RST 특수부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 직전인 1월 17일 RST의 한 부대가 마침 실제로 자바섬에서 암본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어 허쉬펠트는 이를 토대로 반브레덴 장군



네덜란드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술탄 하미드 2세

과 네덜란드 국방장관 쇼킹이 RST부대의 철수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전문을 피첸 장관에게 보냈다.

그러던 중 1950년 1월 22일 저녁 9시 중무장한 RST 특수부대원들이 바뚜자자르의 병영을 이 탈하여 APRA 반란에 가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즉시 공화국군 실리왕이 사단 사령관 사디킨 대령과 자카르타의 반브레텐 장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부대에 나타난 RST 지휘관 보가우츠 중령은 부대원들의 조직적 탈영에 크게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사실 보가우츠 중령은 일부러 놀라는 척 한 것인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그의 RST부대 전임지휘관이 베스틸링이었으니 말이다. 사디킨 대령도 9시경에 부대를 방문했다. 인원점검결과 바뚜자자르에서 140명, 뿌라바야에서는 190명의 RST 대원들이 탈영했으며 짜마히의 부대에서도 암본출신 병사 12명이 탈영했음이 확인되었다.

레드베레와 그린베레의 합작품인 RST 특수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결국 때를 놓치고 말았다. 철수계획을 예전 부하들로부터 전해 들은 베스틸링은 철수시작 전인 1950년 1월 23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미 전역한 베스틸링이 후임 보가우츠 중령의 도움없이 현역 특수부대원들을 마음대로 빼돌릴 만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네덜란드군이 탈영을 가장하여 특수부대원들을 파견해 APRA 반란군을 조직적으로 도운 것일까? KNIL 부대의 T. 카사 중령은 앵글스 장군에게 전화하여 중무장한 APRA 부대가 뽀스브사르 도로를 통해 반동으로 기동하고 있음을 보고했으나 정작 반동의 실리왕이 사단은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다. 베스틸링과 부하들은 길에서 마주치는 공화국군을 무조건 사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도양양하던 마니하사 출신 램봉 중령을 포함한 94명의 공화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APRA 측은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계속 진군해 갔다.

베스틸링은 반동공격을 지휘했고 메이어 상사의 RST 부대가 수까르노 대통령을 생포하고 정부청사들을 장악할 목적으로 자카르타를 향했다. 그러나 반동에서는 실리왕이 사령부를 점령하는 전술적 승리를 거두지만 이 기회에 함께 봉기할 것으로 믿었던 인근 KNIL 부대나 서부자바 다룰이슬람의 반란군이 끝내 침묵함에 따라 자카르타 공격이 실패하면서 APRA 반란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반동을 한껏 휘저어 놓은 후 RST 부대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모두 원래의 부대로 복귀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베스틸링 본인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카르타에 스며들어 1월 24일 호텔드인디에서 하미드 2세를 다시 만났다. 술탄은 이번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비서인 J. 키어스 박사를 동행한 하미드 2세는 자카르타 공격실패에 대해 베스틸링에게 호통을 쳤고 반동에서 실리왕이 부대원들을 학살한 것을 호되게 질책했다. 베스틸링은 이에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하미드 2세의 반응을 본 후 호텔을 떠났다. 1월 25일 하타 부통령은 베스틸링이 RST와 다룰이슬람의 지원을 받아 다시 자카르타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허쉬펠트에게 연락했고 앵글스 장군 역시 베스틸링이 당시 다룰이슬람 반군들의 본거지 중 하나였던 가룻에 추종자들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네덜란드군 보가우츠 중령(왼쪽), 실리왕이 사단장 사디킨 대령(우측)

다음호에 계속

2019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라이온에어 소유 '보잉737NG' 부품서도 균열 발견... 운항 중지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미국 항공기 대기업 보잉의 소형 여객기 '보잉737넥스트제너레이션(NG)'의 부품에서 균열이 발견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라이온에어(Lion Air)가 소유한 항공기 2대에서도 균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2일자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운항을 중지한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PT Garuda Indonesia) 산하의 스리위자야 항공(PT Sriwijaya Air)에 이어 균열이 발견된 것은 총 5대를 기록했다.

교통부 항공운수국 관계자는 “앞서 3대의 항공기는 비행사이클(항공기 운항 사이클)이 3만회 이상이었지만 라이온에어의 2대는 2만 2,000회로 비교적 새로운 기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의 보잉737NG 보유수는 가루다항공 73대, 스리위자야항공 24대, 라이온에어 102대, 라이온에어 산하 바택에어가 14대다. 이 중 가루다항공 3대와 스리위자야항공 5대의 비행사이클이 3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문제가 발견된 부품은 '피클 포크(pickle fork)' 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몸통과 날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내년 주최저임금 인상률에 노사 모두 난색...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내년 1월에 적용되는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률을 8.51%로 설정한 것에 대해 노사 양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의 노동국은 내년 주최저임금을 노사정에 의한 임금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 인상률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금액은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수준(KHL)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KHL을 산출하기 위해 전통 시장 등에서 실시하는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을 이전의 60개에서 78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으로 노사정이 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안똌 부회장(노동 문제 담당)은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이 4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율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8.51%의 인상률에 난색을 표했다. 전국의 주최저임금 상승률은 2011년 11.5%에서 2012년에는 8.25%로 낮아졌지만, 이후 4년간 연속 8%를 넘고 있다.

자카르타 노동국의 안드리 국장은 임금위원회가 이미 KHL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에서 산출된 KHL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인니 교통부 “LRT 전 노선 개통 2021년 11월 예상”

부디 까르야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3일 자카르타 경전철(LRT)의 전 노선이 오는 2021년 11월에 개통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 날짜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뎀뽀의 보도에 따르면, LRT는 이번 주 동부 자카르타 짜왕-서부 자바주 짜부부르 역 구간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한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시험 운영은 3~6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1편성 6량의 열차 5~10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선이 개통되면 자카르타에서 서부 자바주 보고르-데벡-브까시(Jabodebek)까지 묶인다. 또한 짜왕 역에서 도시철도(MRT)도 연결된다.

인니 국가경쟁력 5계단 하락한 50위… “노동시장 · 인적자원 등 취약”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50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5위에서 1년 새 5계단 하락한 순위다.

WEF는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각국 정부 통계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 등을 종합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내린다.

WEF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를 발간했다. WEF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를 경쟁력 산출의 근거로 ▲인프라를 포함한 기본환경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원 ▲노동시장을 포함한 시장 ▲기업활력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등 총 4대 분야의 12개 부문, 총 103개 항목에서 141개 국가를 평가했다.

2019 지표는 세계 GDP의 99%를 차지하는 141개 국가와 경제권을 분석하여 “경쟁력과 번영의 성과 공유,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조사 대상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는 국가경쟁력 평가 부문 중 노동시장, 인적자원, ICT 보급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ICT 보급 부문에서 72위를 기록해 디지털 및 혁신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상업은행 BCA의 데이비

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노동시장과 기술 개혁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노동법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최근 학생시위로 인해 연기된 계획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는 이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 제2기 내각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 규모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 부문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사업 역동성은 29위를 차지했다.

WEF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9%로 정부 목표인 5.3%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및 수출 부진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5.05%로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또한 최근 중국에 상장된 회사 중 33개사가 공장 이전 및 확장을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 및 말레이시아로 이전했지만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WEF는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환경적인 리스크”라며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 쓰나미 사례와 일본의 대홍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이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순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주변국인 말레이시아(27위)와 태국(40위) 보다도 낮았다. 베트남은 67위로 지난해보다 10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13위로 평가됐다.

중앙은행, 전자화폐 결제 급증... 전년비 13% 증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1~8월 전자화폐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2억 2,000만건이었다. 반면 직불카드 결제 건수는 13% 증가한 47억 1,000만건에 그쳤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일자 보도에 따르면 1~8월 결제 총액은 직불카드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083조 2,700억 루피아, 전자화폐가 2.9배인 81조 8,100억 루피아였다고 발표했다. 결제 총액은 1회당 결제 금액이 더 큰 직불카드가 우세하지만, 전자화폐 결제 총액도 상당히 증가했다.

국영 은행 만다리(Mandiri)의 무하마드 부행장은 “직불카드 결제는 고객에게 이미 당연한 지불수단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직불카드는 전자화폐에 돈을 입금하는 기능도 있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BRI)의 아리프 부행장은 “전자화폐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한도를 낮춘 것도 거래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고 지적했다.

재무부, 담배 종류별 증세액 발표... 흡연을 저하 · 세수증가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담배 세금을 인상, 이에 따른 담배세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9년 제152호’ 에서 담배 종류별 세액을 발표했다. 증세에 따른 흡연을 저하와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 끈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관세국은 “새로운 세율은 1~3주에 걸쳐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라며 “내년도 담배 소비세의 목표 세수액을 2019년도의 세입 전망보다 9% 높은 180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라고 언급했다.

스리 재무장관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전체 흡연자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7.2%에서 9.1%로 상승, 여성의 비율도 전체의 4.8%로

증가한 부분이 담배세 인상 단행에 영향을 줬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애니 경제학자는 “담배세의 급격한 인상은 불법 담배 유통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했다.





Shu Guo Yin Xiang (Senayan)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 까약~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계절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이렇게 빨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 분들에게는 휘귀로 유명한 Hotpot 맛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맛집 소개 전에, 우선 간단히 휘귀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휘귀는 중국식 샤브샤브 요리로 내몽고 지방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큰 세수대야처럼 생긴 큰 냄비에 보통 한쪽은 하얀 국물(백탕)을, 한쪽에 빨간 국물(홍탕)로 끓여 고기와 야채 등을 넣어 먹습니다.

음식 소개에 이어 간단히 음식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휘귀의 유래는 원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나라 황제가 중원에서 전쟁하던 중 북방에서 먹던 양고기 요리를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적군의 진격이 시작됐다는 첩보가 왔고,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진 주방장은 양고기를 얇게 썰은 뒤 끓는 물에 데친 황제에게 가져다 주었고, 황제는 이를 급히 먹고 전투를 치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주방장이 급히 건네 준 이 음식의 맛이 생각나 주방장에게 상을 내리고, 이러한 양고기 요리법에 휘귀(췌양러우)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휘귀의 유래에 대해 알고 보니 휘귀의 맛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카르타에 있는 많은 휘귀 식당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당은 Shu Guo Yin Xiang입니다. 본점은 Mangga Besar 지역에 있어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최근 남부 자카르타 Senayan City Mall 안에 오픈하여 식당 방문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휘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다소 복잡해서 정신이 없으시죠?ㅠㅠ 국물부터, 고기, 야채 등을 각각 골라서 주문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릴까 해요~ 우선, Combinations 2 Flavours Soup(128,000루피아++)를 주문하여 Special Pork Bone Soup(백탕)과 Szechuan Mala Soup(홍탕)을 선택합니다. 매운 음식 잘 못 드시는 분이라도 백탕과 홍탕을 함께 주문하여 적당히 섞어 드시면 너무 맵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몸보신 하기엔 백탕이 최고고요~스트레스 해소하기엔 홍탕이 최고입니다!

특히 이 식당의 Special Pork Bone Soup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안 나고 참 맛있습니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이제 고기를 선택합니다.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해산물보다는 쇠고기인 US Angus Short Rib Prime(138,000루피아++)을 추천합니다! 역시 고기는 쇠고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휘귀의 유래가 양고기 요리에서 왔다고 한들 양고기에서는 잡내가 좀 나다 보니 먹기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ㅠㅠ

그 다음 Mixed Vegetable(68,000루피아++)과 Mixed Mushroom(88,000루피아++)를 고민없이 바로 주문합니다~ 그리고 고기 말고 휘귀의 하이라이트인 Deep Fried Beancurd Skin Roll(32,000루피아++)를 반드시 꼭 주문하시기를 강추합니다! 크리스피한 두부 껍질을 국물에 살짝 끓여 먹어도 맛있고 푹 익혀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해서 먹더라도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로 시작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속 추가 주문을 하시게 될 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요새 한국에서 유행 중인 중국식 넓적당면인 Sweet Potato Noodles(Wide)(28,000루피아++)를 풍당 국물에 넣어줍니다. 한국식 당면도 맛있지만 중국식 넓적당면이 더욱 쫄깃쫄깃한 게 식감이 더 좋습니다. 이 메뉴도 고민없이 바로 골라주세요~

Shu Guo Yin Xiang 스나얀시티점에서는 매주 주말 저녁 8시에 중국의 전통극 중 하나인 변검(중국 쓰촨성 지방의 전통 가면술) 공연이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놓칠 수 없죠! 입으로도 즐기고 눈으로도 즐기는 휘귀 맛집 Shu Guo Yin Xiang, 11월달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떠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Shu Guo Yin Xiang>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0:00~22:00
 전화번호 : 021-7278-1343
 위치 : Senayan City
 Jl.Asia Afrika No.19
 Jakarta

※ Zomato 참고

한인 진출 100주년에 걸맞은 로드맵을 준비하자

글: 정선 / 한인포스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haninpost@gmail.com



인도네시아에 6개월 이상 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한인동포가 23,000여명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난 8월 한인포스트 기사에 한인사회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한인단체장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인 재외국민 수는 7월 현재 이민청의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거주 가능한 사회문화비자와 KITAP(5년거주 허가자), ITAS(1년 거주 연장 가능자), 국적소유자를 포함해서 최대 23,000명 선으로 보고 있다” 고 전했다. 한인 감소 충격적인 숫자를 전해들은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인경제단체장, 한국지상사협의회 등 20여 임원들은 “말로만 듣던 한인동포 감소 수치를 듣고 놀랐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동포 수는 9,7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 수치는 더 적은 것 아니냐” 고 되물었다. 또한 “20년 전만 해도 5만명 넘게 거주했으며, 10만 한인동포 1000억달러 한.인니 교역목표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 ITAS 거주비자 이상 취득자는 2만명도 안 돼- 2년만에 1만명 급감 원인은?

하지만 통상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로 부르는 1년 이상 유효한부 거주비자 ITAS 이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0명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한인동포 원로는 “한인동포라고 하면 1년 이상 연장이 가능한 ITAS 거주비자 이상을 갖고 있는 동포를 말한다. 20,000명도 안되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앞날이 걱정된다” 고 한숨을 토했다. 6개월 사회문화비자 소지자 23,000명에다 단기방문자 관광객을 합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상시 한국인은 최대 25,000명 내외가 된다. 한국대사관 등 재외동포기관 자료에

따르면 1년전 2018년~2017년 만해도 35,000명 거주를 했다고 공지되었다가 1년 만에 1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가 급감하고 있는 원인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제조업 감소와 대내적으로 외국인 인도네시아 이민법 규제 강화와 제조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아세안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쟁국가 가운데 하나인 베트남의 한인기업과 한인동포가 급증하고 있는 사례와 반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KOCHAM이 발행하는 2019~2020년 한인기업 리렉토리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에 한인 진출 기업수는 2,400여 개로 나와 있으며 급증세라고 전했다.



* 종교 단체 한국학교 한인경제 성장세 급감

그간 한인동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에 가서 각종 정보도 듣고 친목활동을 해 왔다. 또한 각종 한인 취미단체에 가입하여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 왔다. 하지만 한인동포가 급감하자 폐쇄하는 단체가 늘고 있다. 자카르타 거주 한인동포는 “우리교회에 교인수가 매년 줄고 있다. 자카르타 중심부 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회도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인동포 감소는 한국학교에도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인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자카르타 한국학교 JIKS 학생들도 7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원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500~2000명이 뛰어놀던 JIKS 교정이 이제는 허전해 보인다. 한인학생들이 줄어들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 고 우려를 전했다. 한인동포수가 줄어들면 대사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감소도 불가피하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한국대사관과 아세안한국대표부를 비롯한 KOTRA, KOICA 등 각종 기관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 공관 진출은 인도네시아 관련 업무라고 하지만 한인동포 거주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00년 한인사회 성장 로드맵 없어

한인동포 감소는 최근 문제가 아니고 한인사회 성장 로드맵 대책 없이 수수방관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과 중국 등 경쟁 국가 국민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인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KATADATA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95,335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0.04%에 해당한다. 노동인력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근로자 (TKA) 수는 95,335명으로 증가세이며 2017년 85,974명 보다 늘고 있다. 한국인 취업 허가 자 TKA는 9,7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11%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근로자 (TKA)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노동부 이민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중국인 근로자는 32,000명, 일본인 취업자는 13,897명이고, 한국인 취업자는 총 9,686명, 인도 6,895명, 말레이시아 4,667명 순이다.

최근 들어 일본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서비스업 소상공업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



이다. 8000만 중산층 급증에 일본상점들은 수도권 지방 주요 쇼핑몰과 루꼬 가게에 개점을 독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가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제조기반 한인공장들도 중부 동부 자와 이전에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공장유지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 이에 남부 자카르타 요식업 관계자는 “식당에 한인이 줄어들고 현지인으로 채워가고 있다. 미래를 위해 한국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진출은 제조업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각종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 토론했다.

* 기관 단체, 공동운영체 한인동포 성장에 연구 요구

우선 한인동포 성장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정착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한 토양 마련에 기관 단체 나서야 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왕복 항공편 매일 직항 5편이 될 새 없이 관광객과 기업인들을 실어 나른다. 하지만 진작 기업인들의 정착은 손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8월 한국

투자그룹 A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인에게 인도네시아는 한국인의 무덤이다”라며 성공정착은 너무 어렵다고 손사래 쳤다. 미국 일본 등 중, 선진국형 한인사회를 연구해 인도네시아에 맞는 전문 업종을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국에 권역별로 전문 업종을 육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체가 오기 전에 전문단체가 먼저 진입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난 9월 자카르타 북부지역 Mall of Indonesia에 일본 소상공인 그룹 D단체는 30여개 일본계 상점을 한꺼번에 런칭 시켰다. 일본계 진출은 이 지역 뿐만 아니다. 반면 한국 상점은 개별진출에 따른 온갖 어려움에 힘겨운 전투를 벌이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앞으로 소상공인 업종육성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발족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해,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 진출로 한인동포 성장 축을 마련해야 한다.

개천절, 국군의날 기념 행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주아세안 대표부 주최로 개천절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경축 행사가 10월 2일 (화) 저녁 자카르타 더웨스턴 자카르타 호텔에서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하니프 다키리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투자조정청 (BKPM) 토마스 램봉 (Thomas Lembong) 청장 및 낙후지역개발이주부 장관, 국가옴부즈만 위원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인니합동어린이합창단의 양국 국가 합창을 시작으로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한국대사, 주아세안 대표부 임성남 대사의 인사말과 하니프 노동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 내빈들의 케익커팅 식과 한-인니어린이합창단의 양국 민요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행사장 한편에는 주인도네시아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원이 한복착용 체험 후 즉석 사진을 제공하고 한국관광명소 정보 안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우리 아이,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까?



김재구
(Sinarmas World Academy 중등 교감)

“우리 아이를 어떤 국제학교에 보낼 것인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라면 한결 같이 하는 고민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학교를 시의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졸업 후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아이를 입학시킬 계획이라면 고민의 폭은 더 넓어진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국제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써본다.

본인은 땅그랑 BSD 시내에 있는 Sinarmas World Academy (이하 SWA) 국제학교에서 3년째 교감과 학생 주임을 맡고 있다. 그 전에는 SPH국제학교에서 IBDP 한국어 선생으로 6년간 근무하였다. 십여 년간 국제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입시 준비를 해 본 결과,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 한 마디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자부한다.

교육 현장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와 경영학부를 비롯해서 고려대, 연세대는 물론이고 외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홍콩 의대 등 유수의 명문대에 입학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제대로 상담해주는 입시 코디네이터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며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살렸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제학교 선택할 시 고려 사항으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스탠더드’ 반과 ‘어드밴스드’ 반으로 나뉘기도 하고 우열반을 나누지 않고 한 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국제학교의 중·고등부는 영어와 수학,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는 ‘스탠

더드’ 반과 ‘어드밴스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나누어진 반에서 체계적인 수업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드밴스드 반 학생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스탠더드 반으로 강등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한국의 STEAM, 즉 융합인재교육에 부합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영어와 중국어, 인도네시아 수업으로 국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언어 능력을 구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자료를 가공해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수업은 교사의 역량과 직결된다. 그런 면에서 쓰기와 토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과서 밖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며 교과 능력을 평가하는 정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된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 인재의 역량과 직결되므로 STEAM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인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과학수업을 실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과학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은 SWA에서 매년 개최하는 First Lego League (FLL) 로보틱스 국제대회에 참가해 보길 바란다. SWA의 과학과 학과장인 Mr. Haoken은 “초등학교부터 로보틱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아이는 과학 성적도 우수하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으며 상당히 깊고 수준 높은 토론을 겸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중국어를 선택하는 한국 학생들은 저학년에서는 회화와 쓰기 위주



그리고 고학년에서는 원서를 읽는 높은 수준의 중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언어 예컨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은 IB ab-initio 등을 통하여, DP과정의 언어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IB DP 등 양질의 교과 과정을 수료한 한국 학생들은 한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의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우수한 학생이 된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고자 하는 분이라면 입시 코디네이터와 선생님들의 수준을 충분히 따져보시길 바란다. 학생의 입장에서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가르치며 교과 과정 외에 Further Math와 수학 경시대회까지 준비시키고 있는 교사를 만나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다. 몇몇 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을 가르칠 수 없어 학생들이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 씁쓸하다. 본인이 근무하는 국제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합격한 학생은 국제학교 DP 과정의 수학 과목 중 가장 어려운 Further Math를 공부했다.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학교가 대입에 유리하다. 국제 수학경시대회나 과학경시대회, 체육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하거나 수학경시대회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하길 권한다. 대체로 이런 학교의 학생들의 수학 평균능력은 전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보통 국제학교에서 International Math와 국제 평균보다 어려운 Additional Math를 배운다. International Math

는 전 세계 국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재를 다룬다.

일반 학교의 교과 과정보다 1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각종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물, 화학, 물리로 나누어진 과학 교과목과 컴퓨터 학습도 수학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비중이 높은 과목들은 매일 한 시간씩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IB DP 과정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조심스레 얘기해 보겠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지식 습득 능력을 강조하는 IB의 MYP교육 과정과 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충실한 IGCSE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IB DP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학교 성적과 체육에 우수한 학생이라면 몇몇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를 노려볼 만하다. 학비 걱정 없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자부심도 커져 강력한 학습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다. 우수한 학생들은 방과 후 맞춤 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하며 더욱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를 잘 선택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강점이 되므로, 눈과 귀를 열어두고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학교를 선택하라는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우리 아이의 소중한 미래, 경쟁력 있는 학교를 잘 선택해 그 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Dari Sabang ke Merauke, dari Miangas ke Pulau Rote [다리 사방 ㄸ 므라우께, 다리 미앙아스 ㄸ 뽀라우 로떼]” 인도네시아 전역을 얘기할 때 “Dari Sabang ke Merauke”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는 종단으로 해서 북부 술라웨시에 있는 필리핀과 접경을 이루는 미앙아스 섬 (Pulau Miangas)에서 인니의 최남단섬인 로떼 (Pulau Rote)까지’ 라는 표현도 덧붙인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과 비슷하지요. 이렇게 광활한 인도네시아 땅을 언제 다 밟아보나 싶어요.

저는 멀리 있는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것 보단 기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친구네 시골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집밥도 얻어 먹고, 숲에서 새벽산책도 하고, (아침에 씻기 싫은데 ㅎㅎ) 굳이 씻으라고 친구가 장작냄새 나는 부엌에서 데워 준 따듯한 물을 바가지로 퍼서 씻는 일.. 그런 여행이 좋더라고요. 어디선가 나타난 반딧불이 (kunang-kunang)에 불을 얼른 끄고 나무 쪽문을 닫아 반딧불이가 못나가게 했던 (하하),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추억의 장면도 가끔 펼쳐봐요.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볼 만 한 곳’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깨알 정보 📖 반다 아체 끝자락에서 보이는 사방 (Sabang) 섬에서 횡단해 동쪽에 있는 파푸아 므라우케지역까지가 5,245km.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가 5,271km.



바하사로 수다떨기

- ① Mel : San, kamu sudah pernah ke mana saja di Indonesia?
- ② Sani : Enggak banyak sih... Beberapa yang aku suka itu.. Uluwatu, Borobudur, Danau Toba... Salah satu yang paling berkesan bagi aku itu, waktu aku ke kebun kopi di Takengon di Banda Aceh.
- ③ Mel : Wah... Sani sudah keliling ke mana-mana ya~. Aku orang Indonesia saja belum pernah ke sana semua lho.
- ④ San : Enggak juga. Masih banyak sekali yang belum pernah aku kunjungi.
- ⑤ Mel : Aku juga. Bunaken, pernah?
- ⑥ Sani : Belum. Katanya bagus banget, ya? Kalau Wakatobi, gimana? Aku sih cuman tahu namanya doang... haha
- ⑦ Mel : Aku juga pengen ke sana. Wakatobi itu di Sulawesi. Ya.. semacam taman laut lah. Katanya surga menyelam.

- ⑧ Sani : Kalau kita ngomongin tempat wisata di Indonesia, memang tidak ada habisnya ya? haha Kapan ya? kita keliling seluruh Indonesia?
- ⑨ Mel : Yaaaaaa kapan-kapan hahaha.
- ① 멜 : 산, 인도네시아에서 어디어디 가 봤어?
- ② 사니 : 음... 그렇게 많이 가 본건 아닌데...내가 좋아하는 데는 발리 울루와투, 족자 보로부두르, 메단 토바 호수...? 제일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가 만다 아체 따깁온에 있는 커피 농장에 갔을 때였어.
- ③ 멜 : 와.., 안 가 본 데가 없구나?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구나?) 인도네시아 사람인 나도 다 안 가봤어 야~
- ④ 사니 : 그렇지도 않아. 아직 안 가 본 데가 정말 많아.
- ⑤ 멜 : 나도 그래. 부나켄은? 가 봤어?
- ⑥ 사니 : 아니 아직. 거기 되게 좋다며? 와카토비? 거긴 어때? 난 와카토비에 대해서 이름 밖에 몰라.. ㅎㅎ
- ⑦ 멜 : 나도 거기 가고 싶어. 와카토비는 술라웨시에 있어. 해상공원 같은 거지. 스쿠버 다이빙 천국이라.
- ⑧ 사니 : 인도네시아 관광지 얘기하면 끝이 없어...정말 응? 하하하 언제 인도네시아를 다 돌아다니지?
- ⑨ 멜 : 음... 언젠가는...? 하하하



읽으면 읽을수록 인니어 실력이 켑썩!

발리 울루와투 사원(Pura Uluwatu : 께썩 춤(Tari Kecak)

Berlibur ke Pulau Bali akan terasa tidak lengkap jika Anda belum menonton pertunjukan tari kecak. Tempat pertunjukannya selalu penuh dengan penonton dari penjuru dunia. Pengunjung juga bisa menikmati indahny matahari tenggelam sembari menonton pertunjukan ini.

Sumber : Pesona Indonesia ‘Nonton tari kecak sambil menikmati senja di Uluwatu’

발리에 휴가를 가서 ‘께썩 춤’ 을 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여행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공연장은 항상 세계 곳곳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해요. 방문객들은 공연을 보면서 해질녘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어요.



따깁온(Takengon) : 커피 갤러리(Galeri Kopi)

Wangi dan nikmatnya kopi arabika dari Gayo memang sudah melegenda. Coffee shop di tengah perkebunan kopi ini tak sekadar menyuguhkan kopi enak, tapi kopi sehat. Nikmat, bahkan bagi pemilik masalah pencernaan. Ketika berada di Daratan Tinggi Gayo, kita tidak akan lepas dari tiga hal. Kopi, kopi dan kopi.

Sekitar 11 km dari kota Takengon ke arah Bener Meriah, ada satu coffee shop yang menawarkan konsep unik dan dijamin siapa pun pasti menyukainya. Bahkan bagi pengunjung yang bukan coffee addicts. Dibuka pada tahun 2016 di tengah-tengah hamparan kebun kopi milik keluarga, tempat bernama Galeri Kopi ini langsung hits dan menjadi tempat wajib disinggahi ketika berada di Daratan Tinggi Gayo. Tak hanya lezat racikan kopinya, Galeri Kopi sangat Instagramable.

Sumber : Pesona Indonesia

‘Galeri kopi nikmatnya ngopi di kebun kopi takengon’

gayo 아라비카 커피의 향과 맛은 레전드가 된 지 오래다. 커피 농장 한 가운데 있는 이 커피숍은 맛도 맛있지만 건강한 커피를 내놓는다.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gayo 고지대에 오른다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첫째도 커피, 둘째도 커피, 셋째도 커피다. 따깁온 시내에서 브르르 프리아 방향으로 11km 정도 가면, 독특한 콘셉트에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커피를 내놓는숍이 하나 있다. 커피 애호가(중독자)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2016년에 문을 연 이 커피숍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커피 농장 한 가운데(농장이 펼쳐져 있는 중간 지점)에 있다. ‘Galeri Kopi[갈레리 꼬삐]’라고 하는 이 곳은 개업하자마자 히트를 치며 ‘gayo 고지대(Daratan Tinggi Gayo)’ 지역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커피 맛도 맛있지만,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도 건질 수 있어 좋다.





자세히 들여다 보는 문법 돋보기

나는 보로부두르에 못 가 봤다. Saya belum pernah berkunjung ke Borobudur.
아직 못 가 본 곳 tempat yang belum pernah saya kunjungi

1인칭인 { ‘내’ 가 ~못한 A } 이런 구문을 만들 때는 { A + yang + belum pernah + saya + 어근(+접미사) } 이런 규칙을 써요. 이 규칙에는 2인칭 주체자(kamu, Anda, kalian)에도 해당되고 1인칭 복수(kami, kita)에도 해당 돼요.

tempat yang belum pernah saya mengunjungi (x) 접두사를 쓰면 안 돼요. 어근만 쓰고, 접미사가 있을 경우 따라 붙여요.

내가 가져 온 빵 roti yang saya bawa (o) roti yang saya membawa (x) 접두사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읽을 책 buku yang akan saya baca (o)
‘부사어(akan, ~할 것이다)’ 를 주체자 앞에 써요.

buku yang saya akan baca (x) , buku yang akan saya membaca (x)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tempat yang tidak pernah dikunjungi manusia

인간은 제3자, 3인칭이니까 3인칭은 di-수동동사를 써야 해요

그런데, 3인칭이라도 인칭대명사(dia, mereka)이거나 사람 이름(Bu Sari, Pak Harto)처럼 짧을 때는 1,2인칭 주체자처럼 같은 어순 규칙을 적용해서 쓸 수 있어요.

Bu Sari가 만든 튀김 : gorengan yang dibuat Bu Sari (o), gorengan yang Bu Sari buat (o)

개네들이 지난번에 데려 온/데려 간 강아지 : anjing yang dibawa mereka kemarin (o)
anjing yang mereka bawa kemarin (o)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용하기 쉬운 전자 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사이트

교통 체증이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 따르면 전자금융결제 시스템의 활성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대금지불방법도 인터넷과 연계된 창구를 이용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전자결제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무엇보다 다수의 금융기관과 휴대전화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당연히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상품이 도착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결제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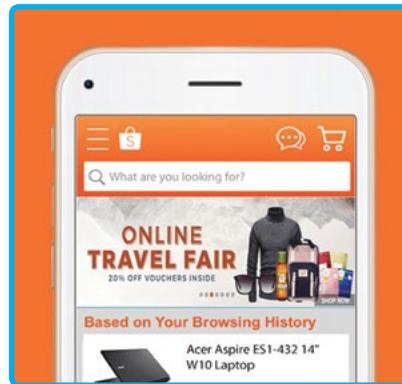


1. BUKALAPAK

자동차, 완구, 통신기, 가구, 카메라, PC, 패션아이템 등 최대 규모의 사이트로 개인 출품자도 많다.

2. SHOPPE

싱가폴의 'SEA' 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출시. 인도네시아 전지역 어디에서든 상품배송이 가능한 것이 특별한 장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침이 매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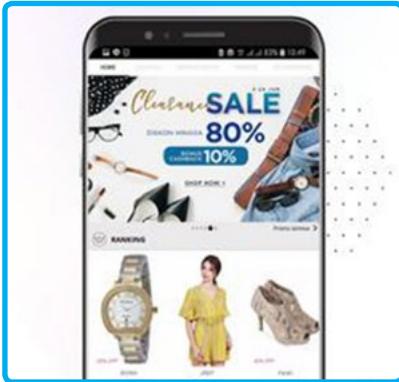


3. JD.ID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오리지널 전자제품이 특화되어 있다.

4. ZALORA

독일의 로켓인터넷(세계 최대 인터넷 벤처기업/선진국벤처의 아이디어를 신속히 적용해 신흥국 시장을 장악)산하의 패션계 사이트.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전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히 무슬림여성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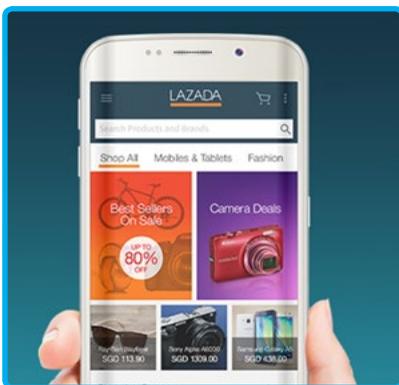


5. VIP PLAZA

초기의 카탈로그판매 사이트로 인기 브랜드의 물건이 빠른 시간에 소비자에게 소개, 전달한다는 것으로 인기를 얻어 이제는 패션계의 최대 인기 사이트로 성장했다.

6. TOKOPEDIA

큰 브랜드에서 소규모 상점까지 개설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패션, 가전, 식품 등 다양한 제품 목록의 구비하고 있다.



7. LAZADA

독일의 로켓인터넷산하의 백화점형 쇼핑 사이트.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사업 중이며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주주로 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식품을 제외한다.

JIKS, 인니문화관광청 공연단 초청 인니예술문화체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지난 10월 17일 초등학생들에게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인니문화관광청 30여명의 공연단을 초청하여, 인니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인도네시아 Betawi족 젊은이들의 기쁨과 자유를 표현한 춤 「Nandak Ganjen」 과 Batak족의 신성한 춤으로 분류되어 있는 「Tor Tor Cawan Lima」 2편으로 무용수와 악단의 앙상블로 진행되었다.

공연 후 학생들은 관람한 춤을 공연단들과 함께 배워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인 Betawi, Bali, Batak, Jawa, Sunda, Minangkabau 등을 입어보며 화려

하고 독특한 인니의 예술문화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카르타 인니문화교육부 Bapak Dodo Sukarda는 준비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뒤 “JKS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뜻 깊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예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자.” 며 초대에 대한 감사 말을 전했다.

JIKS는 내년 6월, 「인도네시아인 데이」 행사를 계획하여 인도네시아를 바로 알리고 이해를 넓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JKKS 학교법인 법인장학금 수여식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3시에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이하 JKKS) 다목적실에서 성적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법인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2018년에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수여하는 것으로 JKKS의 학교법인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지급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한 이 법인장학금은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9학년까지 학업성취도와 JKKS 재학년수를 반영한 점수의 학년별 각 상위 5명을 수여하여, 총 25명에 대하여 각각 1천만 루피아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이다. 또한 JKKS는 고등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을 위하여 JKKS 학교운영위원회 발전기금에서 상위 5명 총 15명에게 각각 동일한 액수의 성적장학금을 지급한다. 즉 5학년부터 12학년들 가운데 총 40명이 매 학기별로 1천만 루피아의 성적장학금 및 법인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배도운 법인이사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JKKS의 몸통인 5학년~9학년 학생들이 인니 최고의 학교가 될 비전을 가지고 앞서 달려가자” 고 했다. 또한 새로 부임한 김윤기 학교장은 “이 법인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JKKS 학생들을 대표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번 장학금 수여의 기회로 더욱 사회에 이바지하여 장학금을 의미를 나누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 고 했다.

JKKS에서는 이 법인장학금, 성적장학금 외에도 한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비롯한 최계월 장학금, 한국타이어 장학금, 꿈키움 독지장학금 등의 한인사회의 기부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40~50명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니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들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공부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복귀한 인니 근로자와 인니 진출 한인기업과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인도네시아 EPS센터)은 2019. 10. 17. 12:00 부터 16:00까지 비다카라 호텔(자카르타 남부 소재) 회의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근무하고 복귀한 인니 근로자 취업 확대 등 지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지원 행사’ 라는 제목으로 인니 인력송출청(BNP2TKI), 그린비즈니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동 행사는 한국에서 귀환한 근로자 60여명, 인니 진출 한국기업 15여개 기업 등 총 90명이 참여하였다.

동 행사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고 복귀한 인니 근로자가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인니 귀국근로자가 인니에 진출한 한인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 귀환 근로자 격려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행사로 구성하였다.

특히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귀환 근로자의 DB를 생성하여 인니의 한인기업들이 공유함으로써 귀환 근로자

가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니 EPS센터 최중운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행사에 참석한 귀국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고향에 돌아 와서도 양국 협력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 을 부탁하면서 인니 EPS센터에서도 송출청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귀국 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인니 정부간 약정으로 진행되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5,000~7000명의 인니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2019년 현재 총 약 90,000명의 인니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약 6만여명이 인니로 복귀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수라바야, 금년 상반기 스마랑에서 개최된 이후 3번째로 개최된 행사로서 한국에서 근무한 인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찌까랑 한글학교 4반, 한글날 기념 서예전시회에 가다

박승현(찌까랑 한글학교 4반)

찌까랑 한글학교 4반(5학년) 학생 11명은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2일 토요일 찌까랑 자바베카 자바팔레스 호텔 문화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한글서예 초대전 ‘노래와 더불어’를 단체 관람했다.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며 열린 한글서예 초대전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자바 팔레스 호텔이 주최하고 자카르타서예동호회 ‘자필목연’이 주관하는 행사의 이번 주제는 ‘노랫말’이다. 서예동호회 회원들은 좋아하는 노랫말을 붓글씨에 담았다.

학생들은 총 26점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다시 한번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토요일 찌까랑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은 우리말과 문화를 공부한다. 이런 전시회의 단체 관람은 처음이라 학생들은 기대에 부풀어 전시장에 들어섰다. 전시회장은 아주 작았다. 한쪽 벽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벽마다 걸린 서예 작품들을 감상하여 대형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황미용 선생님은 “서예 전시회가 이 먼 외국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세종대왕님께

세종대왕님,

저는 오늘 한글날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서예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가는 것라 별 기대 없이 갔었는데 기대이상으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가보니 신기한 그림과 글씨가 가득해 한글이 이렇게 멋지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노랫말이 주제라며 왜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사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선생님께서 이 붓글씨 안에 적힌 한글이 노랫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해서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지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2019년 10월 12일,

승현이 올림

외국에 살며 서예전시회를 감상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은 책이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서만 보던 붓글씨를 보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그린 듯한 그림들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먹물이 마른 자리에 힘차게 피어난 한글이 노랫말처럼 눈과 귀에 따라붙는 하루였다.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



글: 학생기자 구상준(JIS 12)

2019 한인문예총(회장 박형동) 종합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자카르타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로 인도네시아 내 각 학교에서 총 14팀 25명의 13~18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K-POP를 매개체로 하여 노래와 댄스, 비트박스 등으로 그들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낸 자리였다.

이 행사는 동영상으로 예선 심사를 하여 본선 참가자를 선발하였는데, 훌륭한 예선 작품들이 많아 애초에 10팀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본선 진출팀이 14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선 진출 14팀은 댄스 7팀, 노래 6팀, 비트박스 1팀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 모두 무대 아래 대기석에서는 밝고 장난끼 넘치는 청소년들이었으나, 무대에 올라가면 카리스마와 열정과 끼를 뽐내었다.

무대에 서기 전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지인의 따뜻한 열정적인 응원 영상을 보는 재미도 공연 전 흥미를 북돋우는데 한몫했다.

노래 6팀은 솔로가 5팀, 듀엣이 2팀이었는데 뛰어난 실력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노래의 고음 부분에서는 관객의 환성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댄스는 7팀은 K-POP의 파워풀하고 절제있는 칼군무를 선보여 갈수록 열기가 오르게 하였다.

경연대회는 루프스테이션&비트박스 연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주춤했던 한인문예총에서 열심히 응원한 관객에게 Voucher를 선물로 주어서 공연의 재미를 더하였다.

세 분의 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되는 동안 인기 K POP DANCE 초청공연이 있었다.

시상은 문예총 임원 다섯 분이 맡아 주셨는데, 사회자의 즉석 요청에 따라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관객과 하나된 즐거운 시간을 연출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발표된 결과는 인기상으로 팝송과 동요에 맞춰 춤을 춘 노래하는 아이들과 걸그룹 같은 댄스를 보여준 이은서, 정아현 학생이 차지했다. 3등상은 When I was your man을 부른 박진서 학생, 2등상은 taki-taki.mi gente 16 shoo의 파워풀한 댄스를 보여준 최소운 학생, 영예의 1등상은 루프스테이션과 비트박스를 공연했던 최민우 학생에게 각각 돌아갔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명씩 모여들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하며 공연을 보는 그들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기회를 주고,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우리 문화예술을 알려서 한국문화와 인도네시아인들을 이어주는 좋은 문화예술 경연대회였다. 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한국의 인기 가요와 춤을 함께 감상하고 환호하며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고, 감성에 젖게 해주었던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멋진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의 2회 공연을 기대해 본다.



쁘말랑, 안동 -결혼식-



권남혁 (KOICA 해외봉사단원)

새벽 아잔 소리가 멎자
남정네 수련거리며 깨어나는 아침과 함께
'메에-'
애잔한 염소 울음소리 들린다

축제의 날이 밝았다

사뎐 껌빙 그 맛에
수다가 늘어지던 계집애들
구슬 치던 머슴애들도
골목길 무대 앞으로 모여들고
쌀 한바구니 들고 온 이웃들과
사뎐 껌빙 호사를 누리느라
이박삼일 스피커는 지치지도 않고 울어댄다

사십년 전 경상도 시골
초가집 두어 평 고방에 열댓 명이 칼잠을 자고
돼지 멧따는 소리와 함께
깊은 무려부러
서지는 괄괄
남정네는 낮 잃은 돼지 갈래갈래 나누고
아낙네는 삶고 부치고 부치고
돼지 오줌보에 불 채운 아이들 골목 축구
온 동네가 들썩였지

그때 그 남정네, 아낙네, 아이들
오늘 다 뿌말랑에 옮겨 와 있었구나.



이제 586이 끈대라고 하네. 똥차가 되어서 아들, 딸들이 갈 길을 꼭 막고 있다고 하네.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었지. 청년들, 취직이 안 되면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나가라고. 청년들이 답했지. 그러는 당신이 나가라고. 그래, 나부터 나간다.

자식들 키우면서, 자기 자라 온 과거를 복습하듯이, 여기 인도네시아로 옮겨와서 이미 지나간 생의 나날들을 만추하게 된다.

뿌말랑의 결혼식에서, 산업화 도시화 상업화에 점령당하기 전의 70년대의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고, 요즘 거리의 시위 모습에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명동과 종로에서의 그 뜨거웠던 87년 여름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일 년 동안은 몸살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지도 뿌리도 잘라내고 생경한 땅에 꽂아놓은 나무가 어떤 몸살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와서 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 심심함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신음 소리처럼 새어나온 것들을 주워 모았다.

그 시시한 시들에 상을 주겠다. 다들 심심한가 보다. 다들 가슴 속으론 강물이 흐르고, 갈빗대 사이론 바람이 훑고 지나가나 보다. 반갑다.

고맙습니다.

<대상 권남혁 수상소감> 중



태초의 먹거리가 건강을 지킨다

아름다운 몸매와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나 가수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별히 보이는 그들도, 평범한 우리도 몸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두 같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성분이 흙과 물의 성분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의 뼈와 같은 단단한 부분은 흙의 주요 성분과 화학적으로 일치한다. 또 혈액과 같은 액체성분은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으로 바닷물의 성분과 같다는 사실은 인간도 자연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지 거슬러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사람은 반드시 토양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게 돼 있다. 식물은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 빨아들인 후 열매, 잎, 줄기, 그리고 뿌리 등에 농축해서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이 공급하지 못한 영양분은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또는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공급된다.

건강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건강한 신생아는 보통 생후 100일 이전에는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여리디 여린 신생아가 더 많이 앓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갓난 아이의 면역력은 놀랍도록 강하다. 그만큼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시스템은 어떤 질병도 이겨 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픈 것일까?] 왜 질병으로 고통받고 면역력이 약해져 죽음도 맞이하는 것일까? 문제는 [생활 습관]에 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중요시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면역력이 온전하게 가동된다면 사람의 생리학적 수명은 120세이다. 120세를 살지 못한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불순응

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120세를 살고 싶다면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선 아이 때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와 같은 패스트푸드다.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음식의 성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음식 때문에 급해지고, 삭막해지고 정을 잃는다는 것이다. 사랑이 담긴 음식, 엄마의 정성이 담긴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성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중 성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다. 그 돌파구로 술자리 “원 샷 문화”를 만들었고 덕분에 양주 소비량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출산율은 세계 186개국 중에서 184등이고, OECD 34개 국가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몸이 피곤함을 느낄 때는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먹거리에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되는 식용색소,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보조제, 좀더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한 각종 유화제와 팽창제 같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고 쌓여 병이 되고 만다. 이는 가공식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토양 성분의 불균형과 농산물의 영양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농산물에 뿌려진 농약으로 만성질환이나 유전적 질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성질환을 포함한 암환자의 발생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과 물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 때문에 사람들의 체내 중금속 축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편안한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필수 영양분이 결핍되고, 불균형 영양성분의 음식으로, 열량이 많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과잉섭취로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은 수만 가지 영양분이 고루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미량 영양분 하나가 결핍되면 언젠가는 고장이 난다. 그래서 영양성분을 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식품”은 수많은 영양성분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포함되어 있지만, “정제 식품”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영양분만 농축된 것이다. 백미, 흰색 밀가루, 백설탕도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제식품이다. 현미에서 백미로 정제하면서 허를 즐겁게 하는 맛이 좋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이 단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백미와 고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이다.

소, 말, 개와 같은 동물들은 아프면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아플 때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속을 텅 비워 버리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병의 힘이 최고조로 달하지 않는 한은, 공복인 채로 있는 쪽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암 환자에게도 금식과 단식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치료법 중 하나다.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돼 있다.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는 90%, 그리고 70세가 넘는 노인들은 50%가 물로 구성돼 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물의 양은 줄어든다.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서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지만, 찌글찌글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름살이 생기고 나서 값비싼 화장품이나 보톡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서 몸을 물로 팽팽하게 채우는 것이 좋다. 물이 부족한지 아는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데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커피, 녹차, 음료수로 물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커피, 녹차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이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진짜 좋은 물은 각종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중금속은 없는 물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옥수수, 결명차를 넣어서 끓이면 중금속은 없으나 미네랄은 풍부한 물이 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들은 “현미”를 먹어야 한다. 백미는 땅에 심거나 물을 주면 썩지만, 현미는 땅에 심거나 물을 주게 되면 싹을 튀어 “발아 현미”를 만들게 된다.

생명력으로 본다면 백미는 죽은 쌀이요, 현미는 살아있는 쌀이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통밀가루”는 비록 흰색은 아니지만 영양학적으로 전체 식이고, 흰 밀가루는 도정을 해 영양분이 거의 빠진 상태이며, 색상만 탈색해 상품화 시킨 것이다.



샐러드를 섭취할 때는 뿌리, 줄기, 잎 부분이 골고루 균형있게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파를 요리할 때도 뿌리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전체를 요리에 사용해야 한다. 양파도 노란색의 껍질에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요리해야 한다. 사과와 같은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농약 등이 염려되면 알콜 30%의 소주나 보드카와 식초를 1:1로 섞은 후 5~10배의 물을 희석해 과일 또는 채소를 담가둔다. 그리고 10~15분 후 흐르는 물로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 식초를 혼합하면 기생충 알 또는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도 좋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요요현상을 가져 오는 직접적인 원인이기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절대로 굶어서는 안된다. 식사할 때 가장 먼저 채소와 과일 같은 샐러드를 한 접시 먼저 섭취하는데, 반드시 최소한 15분 이상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한다. 그 다음 현미밥과 몇 가지 좋아하는 반찬으로 다시 20분 정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몇 달 안에 몸무게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방법은 변비도 해소한다. 변비는 만병의 원인이다.

단백질은 우리 인체의 중요한 영양소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 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더욱 좋다. 우리 인체에는 고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삼겹살, 꽃등심 같은 고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먹을 때 부드럽고 고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부드러운 고기를 요구하게 되면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됐다.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자라게 돼 있는데, 소를 운동시키지 않고 사육하고,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서 빨리 성장하면서 부드러운 고기가 되어 “광우병” 같은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삼겹살 문화는 가장 나쁜 습관 중의 하나이다.

고기에 포함된 단백질보다 콩에 포함된 단백질이 훨씬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원래 인간은 식물만을 섭취하였는데, 지구가 물로 뒤덮이는 홍수이후에 동물을 섭취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즉 홍수로 뒤덮인 땅에 물이 빠지고 땅에서 다시 식물이 자라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홍수를 피하고자 제작한 노아의 방주 속에 함께 있던 정결한 동물 암수 7쌍 중에서 초식동물 중 일부를 먹기 시작한 것이 육식을 하게 된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평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00세 근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들의 질병중 하나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이 “분노”이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을 “감사”와 “헌신”으로 채우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현대 의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적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먹거리, 생활습관, 정신적 환경 등이 조화롭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생활을 하면 기본이 회복되어,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태초 먹거리 (이계호 지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제4회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회

지난 10월 12일(토) 자카르타 소재 리츠칼튼 호텔 볼룸에서 제4회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인도네시아 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 소재 ROTC 중앙회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지회 대표단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고 김창범 대사,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장, 손한평 한인회수석부회장, 학사장교 동문회장 등 여러 귀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창범 대사 축사에 이어 대회장이자 신임 동남아총회장인 이지현 인도네시아 지회장(23기, 85년 임관)은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단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ROTC 중앙회 진철훈 회장(14기, 76년 임관)은 축사를 통해 ROTC의 의의와 동문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사회초년생 후배들을 위한 취업협조와 현 동남아총회를 아시아 총회로 확대승격 등은 중앙회 차원에서 총의를 모은다. 2부와 3부 행사에서는 최재원 동문(14기, 인니지회)이 이끄는 한바패의 사물놀이, 재즈밴드 공연, 이슬람 전통무용, 현상범 동문(15기, 인니지회)의 앙골롱 합주지휘에 이어 중앙회 대표단이 합창과 이성모 동문(14기)의 가수 부인 오성숙님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중앙회 참석자 중엔 경찰서장, 교장, 교수 출신

들과 이준석 통일정신문화원장(14기, 전 교육부총리)도 포함되었다. 11일(금)부터 속속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각국 대표단들은 리츠칼튼호텔 앞 술라웨시 전통 시푸드 점에서 전야제를 가졌고 12일(토) 갈리바타 영웅묘지를 참배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중앙회는 동문자녀 장학금 전달과 현지 한국학교(JIKS, 김윤기 교장)에 64인치 TV 전달 등의 일정도 소화한 후 14일(월) 귀국했다.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회는 2015년 자카르타에서 결성되어 2016년 베트남 하노이, 2018년 호치민을 거쳐 올해 다시 자카르타에서 4회차를 맞았다. 이후 아시아총회로 참가지역이 확대되면 중국, 일본, 중동 소재 지회까지를 포괄하여 동문간 교류가 아시아 전역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광규 시인 인니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ntari' 북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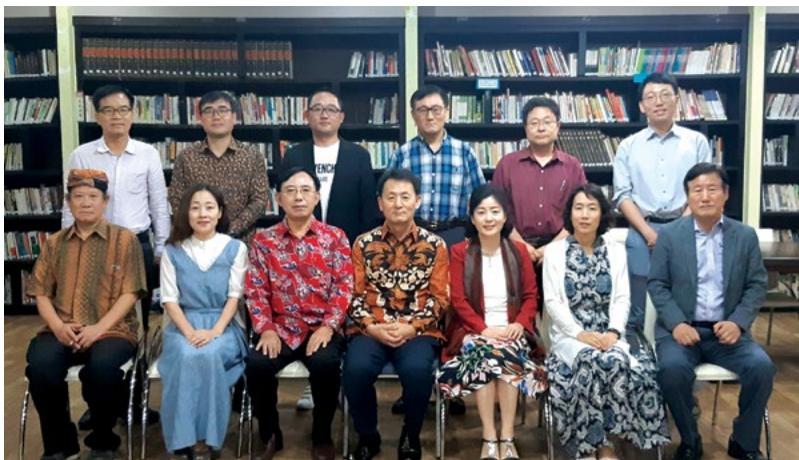
한국 대표적 서정시인 가운데 한명인 공광규 시인은 인도네시아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ntari' 을 출간하고 3박4일의 일정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서미숙)회원들을 위한 시 창작 문학특강, 인니어 번역시집 특별 시화전 및 팬 사인회, 메인 행사인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북 콘서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토요일(10/19)자카르타 한인문화회관에서 2시간동안 진행된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특강은 이번에 출간된 인니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을 함께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시집에 실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공시인의 대표시 '별국' '애장터' 등외에<적도의 아이들>, <제비>,<붉은 암바라와>등, 인니에서 쓴 시를 함께 읽고 감상하며 시인의 음성을 통해서 시 창작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자카르타 시내 대형쇼핑몰인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열린 2019년 제6회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인니어 번역시집 특별 시화전과 현지인을 위한 북사인회를 가졌다.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이번 공광규 시인의 인

니 일정 중 가장 주요행사인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서 열린 인니어 번역시집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ntari' 북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UI 북 콘서트는 한국 시인으로는 최초로 2019년 10월 21일(월)오후 2시 테뵉에 위치한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 도서관 아뽕홀(Apung Hall)에서 열렸다. 지난 9월, 한국의 서정시를 인도네시아에 알리기 위한 문학사업으로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회장:서미숙)가 한국문학 세계화위원회(대표:권대근)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콤파스 그라메디아(Kompas Gramedia)출판사 중 한 곳인 그라신도(Grasindo)에서 공광규 시인의 '햇살의 말씀 Pesan Sang Mentari' 이라는 인니어 번역시집을 출간하였다.

시집 감수를 맡은 인도네시아 조꼬 삐누르보(Joko Pinurbo)시인은 "공광규 시인의 작품은 삭막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으며 순수한 신앙인 자연으로부터의 삶의 지혜를 겸손히 다시 배워야 한다는 숨겨진 메시지를 준다" 고 전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시집해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문학가인 조코 삐누르보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 문학특강-자카르타 한인문화회관



공광규 시인 북 사인회-롯데쇼핑에비뉴 메인홀



시인, UI 입누 와휴디 국문과 교수, UI 한국어학과 장에바 교수 등이 함께 자리했다.

계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로 붐볐으며 북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중간고사중인 바쁜 시기임에도 UI 학생들 100여 명이 도서관 아뽕홀(Apung Hall)을 가득 메운 이 행사에서 공광규 시인은 ‘햇살의 말씀’이라는 시집에 관하여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다. 문협 회원들의 시 낭송과 축하음악으로 가야금 연주인 퓨전 ‘아리랑’을 감상하기도 했다. 그라신도 출판사와 UI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식과 단체사진 촬영 등 공광규 시인과 함

UI 교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자리한 도서관 아뽕홀에는 어느덧 따듯한 햇살이 홀안을 가득 비추며 인니어 번역시집인 ‘햇살의 말씀 Pesang Sang Mentari’의 인도네시아 북 런칭을 축하해 주는 듯 했다. 이번 공광규 시인의 인니어 번역시집 북콘서트를 계기로 한국의 아름다운 서정시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사제공: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공광규시인 북 콘서트에 참석한 우이대 문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한인회 양영연 명예고문 국민훈장 목련장 친수

제 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국민훈장 목련장 양영연 한인회 명예고문



10월 5일, 서울 위커했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명예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번 기념식에는 전세계 재외동포를 대표해 모인 약 400명의 한인회장들 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와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동포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냈듯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도 동포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한다” 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재외동포신문 제공)

YBLN(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신임회장에

이주한 로얄수마트라그룹대표선임



이주한 회장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4일 폐막했다.

이번 한상대회에는 60여 개국 한상 1000여 명과 국내 경제인 3000여 명 등 총 4000여 명이 대회를 찾았다.

올해 한상대회에는 과거와 달라진 한상 네트워크를 재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젊은 한상들

은 한상대회에서 인맥 지도를 넓혔다. 2008년 제 7차 세계한상대회에서 탄생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에는 전 세계 120여 명의 영한상이 참여했다.

신임 YBLN 회장에는 인도네시아 한상인 이주한 로얄수마트라그룹 대표가 제 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사흘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공: 여수넷통뉴스)



ACS Jakarta G12 최민우

10월 20일 1318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 1등 수상자
(2019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행사 중)

2019.10.20

진짜가 되자.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가...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나?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같이 걷고 있다.

#북치기박치기#기계와사람의콜라보
#최고령자의여유 #리듬에몸을던져



♥ 🔍 📌 좋아요 1498

‘루프스테이션’이란?
트랙을 반복재생되는 구간에 소리를 쌓는 기계

332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탐방> 3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탐방 ② 이슬람편

70년대, 초창기 한인 무슬림들은 빠사르 바루의 중국인 이슬람 사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뿌리를 내렸을까요.

80년대 초, 무함마디야 종교부 초청으로 한국 이슬람 유학생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라는 다짐으로 왔을까요. 그 후 어떻게 다른 종교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한국 중앙이슬람교에서 입교하여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게 된 샤리파 lee 와의 흥미진진한 만남도 기대해 보세요.

*한인 100년사 편찬을 응원해 주세요.

진행: 한인 무슬림협의회 리더 알리 안선근 박사

일시: 2019년 11월 10일(일) 10:00~15:00

집결: 10:00 Masjid Agung Sunda Kelapa

Jl. Taman Sunda Kelapa No. 16

Menteng, Jakarta Pusat

접수: 밴드덧글: <https://band.us/@ikcs>

☎ SMS/KT: 081-111-7230,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

상속법(Hukum Waris)(2)

(전호에서 계속)

6. 수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수기 자필증서 유언은 전체 내용을 유언자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써야한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자필증서가 되지 않는다. 유언서에 유언자가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쓰고, 작성년월일,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쓰고, 서명, 손도장 혹은 날인하면 자필증서 유언이 성립한다. 작성년월일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이 간단하고 가장 비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유언 내용 수정도 용이하나 반면에 분실, 은닉 혹은 파기의 위험이 있다.

7.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성명, 녹음년월일 및 유언 내용을 구술로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간편하고, 몸이 성하지 못하여 자필로 필기하기 어려운 사람도 쉽게 녹음에 의한 유언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비밀이 확보되나 분실, 은닉, 파괴, 변조, 위조, 소음 등의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유언 방법이다.

8.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에 낭독해주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혹은 수인하고, 공증인이 서명 날인 하면 성립 하는 유언 방식이다. 법무부에 공정증서 유언장을 등기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장은 분실, 멸실 혹은 변조의 위험이 적으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9.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이 쓰여 있는 증서(자필이 아니거나 작성 연월일이 없어도 괜찮다)

에 성명을 기입한 후에 봉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된다. 그러나 비밀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급박하여 이미 설명한 상기 4종의 유언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일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두로 말하고, 유언 내용을 들은 증인이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한대로 필기 후 낭독해 주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내용의 확실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혹은 기명 날인하여 유언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다.

11. 유류분(Legitime Portie/법정상속 지분) 상속

민법 제913조는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위 법정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법으로 정해 놓은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뜻하는 강제 상속규정이다. 유류분 권리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 발생하며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 시효는 30년이다. 30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라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남용하면 경제적으로 피상속자의 보호아래 있던 근친 유족들이 피상속자 타계 후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재산에는 근친의 잠

재적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친이 피상속자 사망 후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법으로 근친 상속자의 몫으로 정해 놓았다. “예” 를 들면, 부인과 자녀를 유족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모든 재산이 값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사망 후에 모든 유산을 특정 장학재단, 교회, 사회단체 혹은 특정인에게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전체 유산을 피상속자가 지정한 장학재단이나 특정인에게만 넘길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부인, 자녀 혹은 부모의 몫은 반드시 부인, 자녀 혹은 부모에게 넘겨야 한다. 피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유언에 의해 피상속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 상속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배우자 혹은 자녀들 간에 형평이 맞지 않은 상속을 했을 때도 발효한다.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법정 유류분 이하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법정 유류분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11.1. 유류분 권리 보유자

민법에 유류분 권리자로서 분류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및 직계존속(부모 및 처부모)으로 한정하고 있다. 방계 혈족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미 잉태되어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태아는 민법에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되어, 태아에게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는 경우에는 없었던 존재로 간주된다.

11.2. 유류분 산정 기준치

유류분은 상속 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 개시 1년간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1.3. 유류분의 비율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호주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상속인 간에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나, 처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과 처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11.3.1. 상속 자식이 한 사람뿐인 경우의 유류분 몫
피상속인이 특정 재단에 유산 전체를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을지라도 상속인이 한 사람 있으며 이 한 사람뿐인 상속인에게 법에서 규정한 유류분 몫은 그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의 1/2이다.

11.3.2. 상속 자녀가 두 사람인 경우의 각 상속인의 유류분 몫

피상속인이 특정 재단에 유산 전체를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을지라도 상속인이 두 사람이며 두 사람의 상속인 각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유류분 몫은 그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의 2/3이다.

11.3.3. 상속 자녀가 세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인 경우의 각 상속인의 유류분 몫

피상속인이 특정 재단에 유산 전체를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을지라도 상속인이 세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이며 이 세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 각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각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 몫은 그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의 3/4이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한국과 다르다.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할 때 한국식은 두 사람을 포함하나 인도네시아에서 두 사람 이상은 두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고 세 사람부터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donesia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THE 10th 'INDONESIA STORY' LITERARY PRIZES THE 3rd KOREAN ESSAY CONTEST

시상식

인도네시아 이야기

축하공연

SUMATRA MUSIC & DANCE

23 Nov 2019 (Sat) 19:00 – 21:00

Galeri Indonesia Kaya (GIK)

(Grand Indonesia West Mall 8th Floor)





제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수상자 및 수상작

상명	일반부		상명	학생부	
	이름	제목		이름	제목
대상 주인니대한민국 대사상	권남혁 KOICA 단원	(시) 뽀말랑, 안동-결혼식	대상 주ASEAN 대사상	이정원 BBS Semarang Junior College 1	날아라 라플레시아
최우수상 제인니 한인회장상	홍윤경 Pleats Kora Indonesia 대표	오랜 시간 흘러서 만난 오늘	최우수상 제인니상공 회의소회장상	조유나 JKS 11학년	(시) 부겐빌레아
우수상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장상	이정희 가정주부	스마랑, 바람의 고향	우수상 KOICA 소장상	이나림 JKS 11학년	나를 성장시켜 준 나라
우수상 한인기업상 PT. Taewon	이성희 PT Innotech Indonesia 이사	인도네시아에서 찾은 행복	우수상 물따돌리 박물관장상	조영진 SPH 12학년	차별이 내게로 왔다
우수상 한인니 문화연구원장상	이소현 가정주부	10%	우수상 인문창작클럽 회장상	김경모 JIS 11학년	(시) 슬라맛 따나 아이르
특별상 Lembaga Kebudayaan Betawi상	이지은 가정주부	(시) 그 순간 켜진 신호등	특별상 인니문화단체상	이상원 JKS 12학년	(시) 큰 산
특별상 인니예술가 Edwin상	강덕현 JKS교사	골목길	특별상 인니예술가 Widayanto상	김솔 Capistrano Valley HS 졸업	나의 새로운 나라
특별상 Gran Melia Hotel상	최원금 Happy Center장	"밥퍼" 이야기	특별상 인니예술가상	김민주 BSJ 11학년	판도라 상자, 람뽕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ㄱ, ㄴ, ㄷ 순	배외순 가정주부	(시) 살아가는 이유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ㄱ, ㄴ, ㄷ 순	김도아 JKS 11학년	(시) 수평선의 여름
	이현승 단국대학교 4학년	인도네시아는 처음이라		김재은 CHCS 12학년	수라바야
	전형례 가정주부	(시) 디아스포라		박유민 JKS 8학년	두 번째 고향이 될 나라
	한화경 가정주부	(시) 여름이 겨울에게		박희연 JKS 11학년	내가 바라본 인도네시아
특별장려상	배연자 자유총연맹 회장	내 마음엔 언제나 독도가 춤을 춘다		한하은 JKS 11학년	찰락, 인도네시아

심사위원: 이덕주(시인, 평론가) 채인숙(시인, 다큐멘터리 작가) 배동선(소설가) 최준(시인)

초대장

깊어가는 고국의 가을을 그리며 문협회원들의 풍성한 창작의 결실로
만나는 2019년 **인도네시아문학** 제6집 출간기념식 문학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 '인도네시아 문학 제6집' 회원들의 창작노트 발표

2부 : 축하 공연 및 참가한인들의 시낭송



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 / 오후 3시

장소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SCBD소재 Equity Tower 17층
Jl. Sudirman Kav 52-53. JKT 12190

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문의 : 문협사무국 : HP 0812-8689-2897
HP 0811-805-017

후원 PT. CIPTA ORION METAL



재인도네시아한인회

HanInPost
한인포스트



2019. 10

茶 파는 여인 (Bu Yuyu 40살)

고향은 Solo 인데 1994년부터 쪽죽 뺏조각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6시 30분 ~ 9시 30분
까지만 영업을 하고 귀가해 내일 영업 준비를 한 후 느긋하게 티비를 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벌써 커서 회사원이랍니다.

평일, 주말, 우천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데 한잔에 칠천에서 만루피아 하는 자무차를 즐기는
동네 주민과 행인이 많아 그런대로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어디에도 있는 자무는 활용 방법이 다양하지만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토
불이 스테미나 음료인 자무차를 매일 한잔씩 마신답니다.

가장 많이 찾는 자무차는 Kunyit asam sirih 이고, 그외로 Beras Kencur, Pahitan, Temu lawak,
Cabe buyang 과 Jahe merah 를 팔고 있어요.

내 꿈이요?

흠~ 언젠가 부자가 되어 인근에 작은 가게를 하나 사서 멋진 자무 찻집을 내고 싶어요. 생각
만 해도 넘넘 행복해요!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어디봐요! 아~ 이사진이 좋겠네요. 호호호~

세상을 바꾸는 미래 인재 양성

ACG School Jakarta 졸업생, Edwin Firmansyah

ACG에서 2018년도 IBDP를 수료한 Edwin Firmansyah 은 세계 20위 내 대학 중 하나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에서 전기 엔지니어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IBDP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뤄낸 Edwin은 UBC에서 세계 우수 장학생에 선발되어 1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Edwin은 ACG School Jakarta와 UBC에서의 교육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세계가 직면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CG School Jakarta는 Cambridge 인터내셔널과 IB 디플로마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능력, 통합사고를 통하여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스킬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CG 교장 Shawn Hutchinson 은 “ACG School Jakarta의 커리큘럼은 글로벌 수준에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창의성 및 기업가적 사고 방식에 중점을 둔 본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Edwin은 이러한 전인적 교육방식이 그의 진학에 상당한 이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ACG School Jakarta에서 다양한 리더십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질문에 귀 기울이는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체험 학습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ducate | Create | Innovate

유치부 | 초등부 | 중고등부

Open Day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시요.
(+62) 21 2978 0200 | acgjkt@acgedu.com
jakarta.acgedu.com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Member of **inspired**



[한인의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웨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CREDITED WASC CAS

JOIN OUR ICHTHUS SCHOLARSHIP PROGRAM

www.ichthusschool.com/scholarships

West Campus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T: +6221 7590 8850

Ichthus Schools Ichthus School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짜까랑)	546 0234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끌라빠가딩)	7591 4414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끌라빠가딩)	750 0739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
9월 26일 SCBD로 확장 이전**

주소: Gedung Artha Graha
Lt.6 Suite 8 SCBD
Jl. Jend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Telp. +6221 5140 1591 /
1592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가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당)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탁)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in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l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증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	-------------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감달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짜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너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짜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하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	------	-----------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dailyindonesia.co.kr

레일링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ANA 가나 RESTOLOUNGE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복요리 전문, 가나의 Delivery Menu 전문, 가나의 케터링 서비스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2019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
 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박준희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김종규 0815 1059 8392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김영희 0815 181 3102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편집 후기

편집장 홍석영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느라 병원에 가보면 언제부터인가 듣기 어색한 우리말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높임말을 쓰면서 거부감을 덜 주는 완곡한 표현을 찾다 보니 때로 잘못된 어법으로 말하게 된 것이라 이해는 갑니다. 어느 때는 ‘그 메뉴는 지금 안 되세요’ 라고 사물에 존칭을 사용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더 공손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구매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품의 설명을 부드럽고 유창하게 하는 매장의 직원을 볼 때 너무 기계적이라 사람을 대면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질문이 있는 저는 좀 당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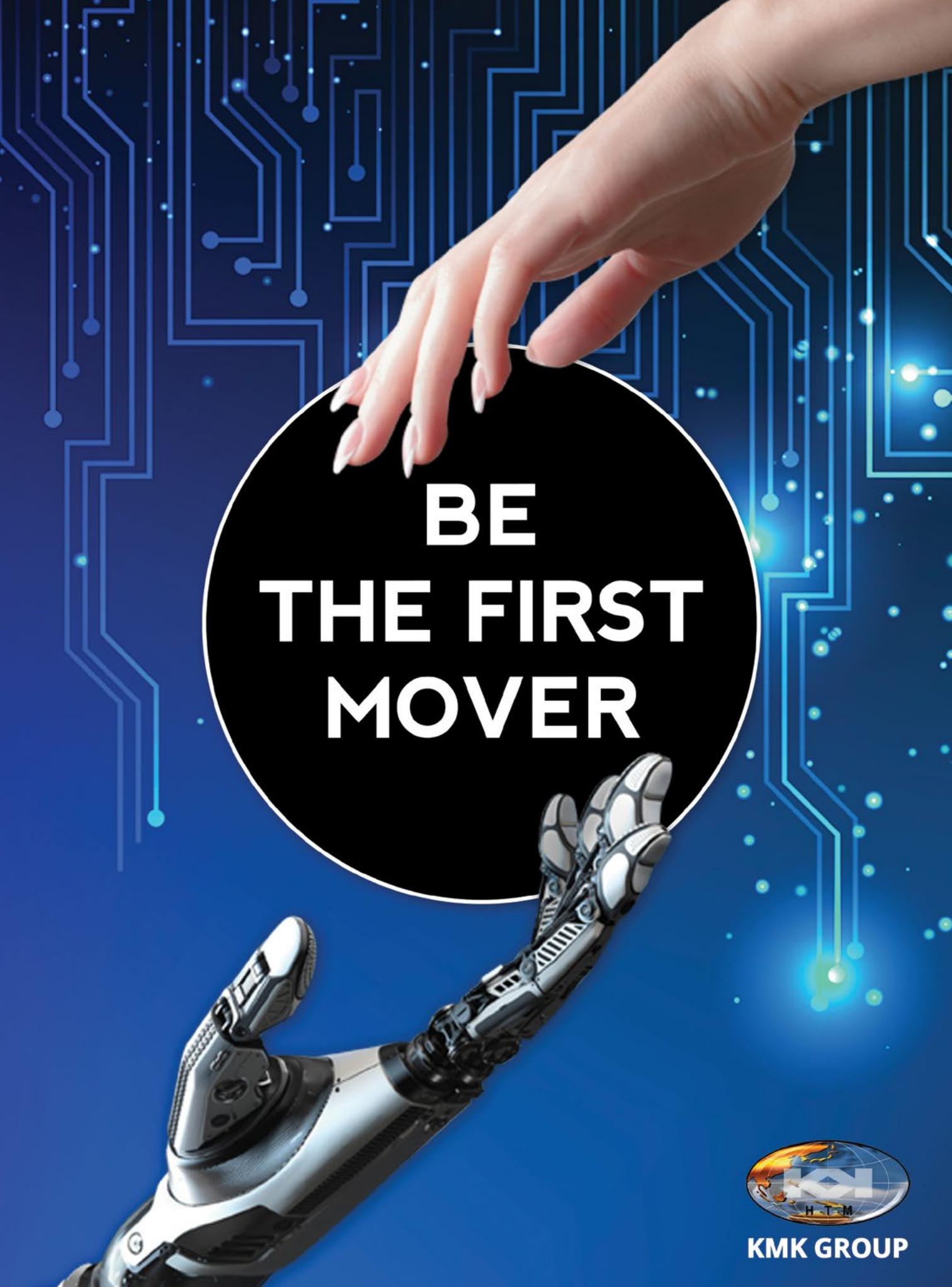
이미 우리가 많은 브랜드에 피로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브랜드의 이미지란 그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소비자에게 따뜻함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닿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진정성과 존중을 기대하는가!? 를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4. 29.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고문	김 갑 수	0811-394-552
		총무	손 민 석	0858- 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윤 재 응	0813-1921-572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BE
THE FIRST
MOVER**



KMK GROUP